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7호【루계 제24660호】주체103(2014)년 9월 4일(목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모란봉악단의 신작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조직된지 불과 2년 남짓한 기간에 자기의 고유한 얼굴과 막강한 창작실력을 가진 멋쟁이악단, 새 세기 선군조선의 예술을 대표하고 선도하는 관록있는 예술단체로 일약 솟구쳐올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있는 모란봉악단이 새로 창작형상한 명곡들을 가지고 신작음악회 무대를 펼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9월 3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모란봉악단의 신작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황병서동지, 김기남동지, 최룡해동지, 김양건동지, 김여정동지, 리재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군대의 책임일군들이 음악회를 보았다.

또한 군대와 사회의 예술부문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 문화성, 문예총중앙위원회, 작가동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작가들, 예술교육부문의 교원, 연구사들이 음악회를 함께 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모란봉악단의 신작음악회를 보게 된 관람자들의 가슴은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녀성3중창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으로 시작된 음악회는 녀성독창과 방창 《바다 만풍가》의 흥취나는 민요로 이어지며 관람자들의 가슴을 한없는 격정의 세계로 이끌어갔다.

녀성3중창 《그리움의 하얀 쪽배》, 녀성독창과 방창 《내 심장의 목소리》가 울리자 천만군민을 한품에 안아 사랑과 정으로 지켜주고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으로 하여 장내는 뜨겁게 끓어번지였다.

녀성중창 《만경대혁명학원교가》, 녀성독창 《그날의 15분》, 경음악련곡 《빛나는 조국》,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조국찬가》, 녀성독창과 방창 《고백》,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노래와 선률로 승화된 음악회무대에 녀성독창과 방창 《철령아래 사과바다》가 울려퍼지였다.

우리 인민의 지향과 감정정서, 민족의 흥치가 넘쳐나고 들을수록 매력있는 시대의 명작 《철령아래 사과바다》는 관람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부흥해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참모습을 한폭의 그림처럼 그려보게 하였다.

음악회는 녀성중창 《근위부대자랑가》, 《승리는 대를 이어》로 막을 내렸다.

온몸에 새힘이 솟게 하는 음악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음악회,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서로 일관된 음악회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젊음으로 약동하고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그대로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우리 당이 제일이고 우리의 사회주의가 제일이며 우리의 음악예술이 제일이라는것을 감명깊이 보여준 음악회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음악회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이 준 과업을 열백밤을 패서라도 최상의 수준에서 완전무결하게 실천하고야마는 결사관철의 정신, 기성의 형식과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안목에서 끊임없이 새것을 만들어내는 참신하고 진취적인 창조열풍, 서로 돕고 이끌면서 실력전을 벌려나가는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이 모란봉악단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조기풍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이번 음악회를 통하여 남김없이 발휘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근 모란봉악단에서 노래 《철령아래 사과바다》와 같은 새로운 작품들을 창작하였을뿐아니라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실력과 기량을 높이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함으로써 작품창작형상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학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을 따라배워 예술창작창조활동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문학예술의 근본사명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인민들의 심장속에 심어주고 천만군민을 불러일으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학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특히 우리 선률이 제일이고 우리 장단이 제일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민요창작에 힘을 넣으며 우리 식의 대중음악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정서적요구에 맞는 예술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란봉악단을 비롯한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드높은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주체적문학예술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감으로써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랑하는 노래, 천만군민에게 힘과 용기, 신심을 안겨주는 명작들을 가지고 진행된 모란봉악단의 신작음악회는 주체음악예술사의 한페지에 길이 남을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선군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조국은 끝없이 륭성번영할것이다

총대를 앞세우고 마련하신 조국의 귀중한 재부

백두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따라 이 땅에 자랑찬 승리의 력사가 장엄히 흐르고있다.

뜻깊은 8월의 그 짧은 기간에도 이 땅에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새롭고 놀라운 희소식들이 련이어 전해져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보다 큰 승리의 활력을 한껏 부어주었다.

남들같으면 엄두도 못낼 방대한 건설과제를 짧은 기간에 수행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의 놀라운 기적, 건축에서 반복과 도식을 피하고 독창성을 살릴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철저히 관철되고있는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장,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게 자기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한 갈마식료공장의 새 소식, 우리 나라 산업시설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일떠선 10월8일공장의 눈부신 모습…

어디 그뿐인가.

각이한 탄도에서 전술로케트탄의 조종성이 최신군사과학기술적요구에 완전히 도달하였다는것이 검증확인된 우리의 성공적인 전술로케트탄시험발사에 대한 소식은 또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크나큰 격정으로 설레이게 하였던가.

지심깊이에서 끓던 용암이 활화산으로 터져오르듯 미처 가늠할새없이 련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땅의 그 모든 변혁과 기적들, 어디서나 흥하는 소식들이 강산에 파도쳐오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이 과연 그 누구의 도움에 의한 결과이던가.

결코 그런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력사의 반동들의 비렬한 도전과 압살책동이 날이 갈수록 더욱 음흉하고 횡포해지고있는 엄혹한 속에서 마련된 것이기에 승리에 대한 우리의 긍지가 그토록 열렬하고 드높은것이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그런 정세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에 승리만을 아로새겨나가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모습을 바라보며 세계는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하다면 오늘의 눈부신 승리는 과연 어떻게 마련된것인가.

이 력사적물음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하나의 목소리로 힘차게 대답한다.

선군은 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근본원천이다!

그렇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내 조국땅에 마련되고있는 자랑찬 승리적현실들을 바라보며, 이제 세계가 더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조선의 모든 사변과 변혁들을 그려보며 선군의 길에 민족의 영원한 번영과 찬란한 미래가 있음을, 또 한분의 걸출한 백두산장군을 모시여 우리 조국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는것을 심장으로 다시금 확신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혁명은 력사의 온갖 풍파를 뚫고 승승장구하여올수 있었으며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초강도강행군길이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인류가 알지 못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습니다.》

선군!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였다.

지금으로부터 54년전 무적강군의 근위사단에 선군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의 세계를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평화바람에 들뜬자들이 대포를 녹여 보습을 만들자고 떠벌이던 그때 선군령도의 거룩한 첫 자욱을 인민군부대에 새기신다는것은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정치적결단을 내리는것과 같은 비상한 의미를 가지는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걸으신 수천수만리의 선군의 자욱을 뜨거운 마음속에 다시금 돌이켜보기도 하시고 수령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사연깊은 권총을 생각하시며 총대우에 혁명위업의 승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도 번영도 있다는 진리를 더욱 심장깊이 새겨안으시였던 우리 장군님,

선군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힘찬 그 결음으로 우리 장군님 룡남산마루에 오르시여 조선을 누리에 떨칠 위대한 선언을 하시였으니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안고 력사앞에 나서신 장군님의 진군로는 선군의 불변궤도였다.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개척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으로 세월의 모진 풍파를 과감히 헤치시며 선군승리의 빛나는 새 력사를 창조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혁명활동로정을 더듬으면 눈굽이 찌릿이 젖어든다.

사람들이여, 잠시 숭엄한 마음으로 우리 장군님께서 걷고걸으신 선군장정의 그 머나먼 길들을 뜨겁게 되새겨보시라.

대덕산초소, 351고지, 1211고지, 철령, 오성산, 판문점, 초도…

선택하기도 어려웠지만 헤쳐나가는것자체가 더더욱 간단치 않았던 선군의 길이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시며 초소의 병사들을 찾아가시던 전선시찰의 길에서 솟는 해를 맞으신적은 얼마였고 하루동안에 수백km를 달리시며 많은 단위들을 찾으신 헌신의 이야기들은 또 얼마이던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주적인민, 자주적근위병으로 승리자가 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제국주의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더 높이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주체의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게 한 필승의 보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어 우리 인민군대는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라났고 우리의 국방공업은 그 어떤 최첨단무장장비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낼수 있는 백두산병기창으로 다져졌다. 선군의 기치밑에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추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도전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낼수 있었다. 제국주의와 정면으로 맞서 자기 할 소리를 다하고 자주적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면서 자주시대의 흐름을 선도해나가는 자주의 강국이 바로 선군조선이다.

오늘 세계를 둘러보면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 무력간섭으로 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민족간, 종족간 대립과 충돌이 격화되여 인민들이 불안과 공포속에 시달리는 비극적사태들이 수없이 빚어지고있다. 여러 나라들의 이 비참한 현실은 선군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의 생명이고 자주적존엄이라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선군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이다.

사람들은 애국과 애족에 대하여 말할 때 경제적부흥, 물질적부의 창조 등 나름대로 이야기하고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평화적환경이 마련되여야 경제도 발전시키고 물질적부도 늘일수 있으며 아름다운 산천도 생각할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을 담보하는 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 정의의 수단을 마련하는것이야말로 참다운 애국이고 애족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결정체이며 민족의 재부인 핵억제력을 가지고 부강조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도발책동에 우리는 선군의 위력으로 단호히 맞받아나가고있다. 강력한 군사력, 핵무력이 있기에 우리 조국과 오늘의 자랑찬 현실이 얼마나 명명백백한 대답을 주고있는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길에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철의 신념을 지니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끊없이 이어가신 선군장정의 머나먼 길이 있어 인민군대가 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수령의 군대, 필승불패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되여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준엄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는 력사의 기적이 창조될수 있었고 우리 나라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세계의 한복판에 우뚝 솟구쳐오를수 있었다.

선군은 단순히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일시적인 전략이 아니였다.

선군의 위력으로 남들이 열걸음을 걸을 때 백걸음, 천걸음을 비약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완강한 공격정신은 고난이 휩쓸었던 이 땅에 기적으로 충만된 락원에로의 천만리를 펼쳐놓았다.

지구를 박차고 날아오른 인공지구위성들, 태천발전소, 녕원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를 비롯하여 수풀처럼 솟아난 굴지의 발전소들, 청류다리와 금릉2동굴, 청년영웅도로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 사회주의조선의 땅닫께 훌륭히 변모된 농장벌들에 뻗어나간 자연흐름식물길들과 도처에 솟아난 현대적인 축산기지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바치시여 천백배로 다져주신 선군의 위력을 떠나 어찌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오늘의 투쟁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겠는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력사의 길, 이 땅에 민족자주와 번영의 년대기를 장엄하게 아로새길수 있는 필승의 보검을 마련해주신 바로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만대앞에, 인류의 미래앞에 쌓아올리신 가장 불멸할 업적이 있다.

선군의 위력을 떨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오늘 또 한분의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총공격전의 진두에 서시여 이렇게 천만을 부르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인민군대는 만능의 주체전법과 백승의 경험을 소유하고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는 우리 식의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완비한 무진막강한 불패의 강군으로 그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고있다.

인민군대를 강성국가건설의 주력군으로 내세워 이 땅에 사회주의 문명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선군혁명령도에 떠받들려 우리 나라에는 불과 2년 남짓한 기간에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풀처럼 솟아났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은하과학자거리,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류경구강병원, 옥류아동병원…

정녕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원불멸할 선군업적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이렇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길에 최후승리의 그날이 온다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이 더욱 심장깊이 새기는 고귀한 진리이다.

불세출의 선군령장께서 진두에 서계시기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은 머지않아 총대로 안아올린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빛나는 웅자를 온 세계앞에 긍지높이 자랑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정 순 학

반미대결전의 빛나는 페지들에서

《푸에블로》호 사건

주체57(1968)년 1월 23일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영용한 조선인민군 해군에 의해 나포되였다. 세계가 숨을 죽이고 조선을 주시하던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시였다.

미국놈들이 항복서를 내기 전에는 선원들을 절대로 석방하지 않을것이다. 그리고 간첩선은 우리의 전리품이므로 항복서를 낸다 해도 돌려줄수 없다!

우리 조국을 침범하는 침략자는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는 선군령장의 드센 담력과 배짱에 겁을 먹은 적들은 이 사건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로 끌고갔다.

하지만 그에 대한 선군조선의 립장은 단호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간첩선사건을 토의하는것은 비법적이다. 간첩선사건은 자주권을 침해당한 우리 나라와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침해한 나라와의 관계문제이다. 그런것만큼 우리 나라의 참가없이 토의된 그 어떤 유엔의 결의도 인정할수 없다!

결국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는 미제의 《제안》이 부결당하게 되였다.

울며 겨자먹기로 담판장에 끌려나온 미제는 회담장에서조차 사죄할 대신 생억지를 쓰면서 배와 승무원들을 내놓을것을 요구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약 미제가 사죄하지 않으면 간첩선선원전체를 군사재판에 넘겨 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으로 적들을 혼비백산케 하시였다. 결국 미제는 세계의 면전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령해침입을 전적으로 시인하고 이를 사과하는 동시에 다시는 우리의 령해를 침범하지 않는다는것을 담보하는 사죄문에 서명하였다.

미국대통령의 담보서한

지난 세기 90년대초에 이르러 조미대결은 더욱 격화되였다.

랭전종식후 더더욱 오만방자해진 미제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사상 최대규모로 재개하고 군사적위협의 강도를 보다 높이였다.

한편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할 목적밑에 《핵개발의혹》설을 꾸며내고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촉하여 우리의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였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경제제재를 더욱 강화하였다.

조국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때인 주체82(1993)년 3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땅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준전시상태가 선포된데 이어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화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폭탄선언이 발표되였다.

이 선언에 온 세계가 깜짝 놀랐다. 언론계는 죽가마끓듯 하였다. 어느 한 외신은 우리 공화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것을 두고 오늘은 지구가 깨여지기 시작한 날이라고 보도하였다.

우리의 초강경대응에 미국은 굴복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여 어쩌는수없이 핵몽둥이를 거두고 조미회담마당에 끌려나왔다.

주체82(1993)년 6월 뉴욕에서 조미 두 나라사이의 공동성명이 력사상 처음으로 발표되였고 다음해 10월 제네바에서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였으며 미국대통령 클린톤이 위대한 장군님께 담보서한을 정중히 보내여왔다.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고 미국대통령의 담보서한까지 받아낸것은 조미대결사에서 또 하나의 력사적사변이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해설

《선군은 곧 자주이고 존엄이며 애국, 애족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에는 선군의 길에 우리 조국과 인민의 자주적존엄이 있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이 있다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있다.

혁명투쟁은 반혁명세력과의 힘의 대결을 동반하는것만큼 강한 혁명무력에 의거하여야만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으며 승리한 혁명을 지켜낼수 있다. 이것은 혁명의 원리이며 공식이다.

선군은 조국과 인민의 자주적존엄이다.

총대가 약한탓에 한세기전까지만 하여도 우리 나라는 렬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짓밟히였고 우리 인민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사대와 망국을 숙명처럼 감수해야 하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 조국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백두산대국으로 위용떨치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존엄은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라섰다. 이것은 두자루의 권총으로 시작된 우리의 선군혁명력사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지난 세기 90년대는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없애버리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다. 자주적인민, 자주적근위병이 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제국주의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더 높이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주체의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게 한 필승의 보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어 우리 인민군대는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라났고 우리의 국방공업은 그 어떤 최첨단무장장비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낼수 있는 백두산병기창으로 다져졌다. 선군의 기치밑에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추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도전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낼수 있었다. 제국주의와 정면으로 맞서 자기 할 소리를 다하고 자주적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면서 자주시대의 흐름을 선도해나가는 자주의 강국이 바로 선군조선이다.

오늘 세계를 둘러보면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 무력간섭으로 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민족간, 종족간 대립과 충돌이 격화되여 인민들이 불안과 공포속에 시달리는 비극적사태들이 수없이 빚어지고있다. 여러 나라들의 이 비참한 현실은 선군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의 생명이고 자주적존엄이라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선군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이다.

사람들은 애국과 애족에 대하여 말할 때 경제적부흥, 물질적부의 창조 등 나름대로 이야기하고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평화적환경이 마련되여야 경제도 발전시키고 물질적부도 늘일수 있으며 아름다운 산천도 생각할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을 담보하는 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 정의의 수단을 마련하는것이야말로 참다운 애국이고 애족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결정체이며 민족의 재부인 핵억제력을 가지고 부강조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도발책동에 우리는 선군의 위력으로 단호히 맞받아나가고있다. 강력한 군사력, 핵무력이 있기에 우리 조국과 오늘의 자랑찬 현실이 얼마나 명명백백한 대답을 주고있는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길에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철의 신념을 지니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끊없이 이어가신 선군장정의 머나먼 길이 있어 인민군대가 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수령의 군대, 필승불패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되여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준엄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는 력사의 기적이 창조될수 있었고 우리 나라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세계의 한복판에 우뚝 솟구쳐오를수 있었다.

선군은 단순히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일시적인 전략이 아니였다.

선군의 위력으로 남들이 열걸음을 걸을 때 백걸음, 천걸음을 비약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완강한 공격정신은 고난이 휩쓸었던 이 땅에 기적으로 충만된 락원에로의 천만리를 펼쳐놓았다.

지구를 박차고 날아오른 인공지구위성들, 태천발전소, 녕원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를 비롯하여 수풀처럼 솟아난 굴지의 발전소들, 청류다리와 금릉2동굴, 청년영웅도로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 사회주의조선의 땅닫께 훌륭히 변모된 농장벌들에 뻗어나간 자연흐름식물길들과 도처에 솟아난 현대적인 축산기지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바치시여 천백배로 다져주신 선군의 위력을 떠나 어찌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오늘의 투쟁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겠는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력사의 길, 이 땅에 민족자주와 번영의 년대기를 장엄하게 아로새길수 있는 필승의 보검을 마련해주신 바로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만대앞에, 인류의 미래앞에 쌓아올리신 가장 불멸할 업적이 있다.

김 철 학

선군시대 군인품성의 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그날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시찰의 길을 걸으시면서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고 선군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시였습니다.》

어느해 6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이날 부대의 군인회관에 들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쪽벽면에 게시해놓은 직판판에 류다른 시선을 보내시였다.

그 직판판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 인민군부대들을 현지시찰하시면서 좋다고 평가하신 문제들이 일목료연하게 적혀있었고 이 부대가 그것을 관철한 정형이 오각별로 표시되여있었다.

직판판을 이윽토록 들여다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호랑하게 웃으시며 내가 좋다고 평가한것이 이렇게 많은가고, 직판판을 보니 내가 평가한 문제들을 다 집행했다고 하시면서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대에서 내가 인민군부대들을 현지시찰하면서 좋다고 평가한 문제들을 써붙여놓은것이 옹근 한벽면을 차지하고있다고, 내가 좋다고 평가한 문제들을 빠짐없이 기록해놓고 도입되는족족 별표식을 하여온 부대일군들의 정신상태가 여기에 다 반영되여있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 응당 하여야 할 임무를 수행한 자기들에게 그처럼 값높은 평가의 말씀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이곳 부대일군들은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좋다고 평가하신 문제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부대의 전투력강화를 위한 뚜렷한 목표였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이였다. 이곳 부대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좋다고 평가해주신 문제들을 학습하고 구현하는 과정에 그이께서 하라고 하신대로만 하면 부대의 싸움준비완성은 물론 모든 군인들을 펄펄 나는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키울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던것이다.

분에 넘치는 평가의 말씀에 황송하여 어쩔줄 몰라하는 부대일군들을 미더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고사령관이 좋다고 평가하면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집행하는것, 이것이 바로 인민군지휘성원들의 혁명적일본새이며 선군시대 군인품성의 핵이라고 마디마디에 힘을 주어 말씀하시였다.

선군시대 군인품성의 핵!

정녕 그것은 자기의 최고사령관에 대한 열화같은 숭배심, 최고사령관이 좋다고 하면 무조건 결사관철하고 나쁘다고 하면 무자비하게 쳐갈기는 우리 인민군대의 절대적인 충직성이였다.

바로 이러한 군인품성을 체질화한 백두산혁명강군이 있기에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는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채 희 성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유럽리사회 의장당선자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와르샤와

유럽리사회 의장당선자

도 날 드 뚜 스 크 각 하

나는 열마전에 진행된 유럽동맹수뇌자회의에서 당신이 유럽리사회 의장으로 선출된데 대하여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유럽동맹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더욱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의 앞으로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9월 2일 평 양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는 청년학생들
—어은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한 광 명 찍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가극예술에 대하여》발표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가극예술에 대하여》발표 40돐 기념보고회가 3일 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박춘남문화상, 예술부문, 예술교육부문의 일군들, 창작가, 예술인, 교원, 연구사들이 참가하였다.

안동춘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주체63(1974)년 9월 불후의 고전적로작 《가극예술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주체적가극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혁명가극 〈피바다〉를 창작하여 공연함으로써 지난날의 가극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가극, 〈피바다〉식가극이 태여났다는것을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에서 가극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습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전적로작에서 우리 식의 가극창작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등장한 시대적요구와 우리 나라 문학예술발전의 절실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근로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새형의 가극을 창조하기 위한 가극혁명의 력사적필연성에 대하여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극예술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을 가극혁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가극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보장할데 대한 원칙,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할데 대한 원칙, 속도전과 집체성의 원칙을 견지할데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가극에서 인물의 사상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생활을 묘사하고 극을 전개시키는 직접적인 형상수단은 노래이며 노래에서 기본은 가사라고 하시면서 명가사가 있어야 명곡이 나온다는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로작에는 가극의 기본형상수단으로서의 절가와 그 우월성, 방창의 특징과 역할, 가극관현악의 특성과 형상문제 등 가극음악창작과 형상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밝혀져있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은 종래의 가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 식 가극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준 가극리론총서이며 가극예술창조의 대백과전서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로작이 발표됨으로써 진정으로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가극을 건설할수 있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 가극예술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 자기 발전의 영원한 개화기를 가져올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그가 담고있는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진리성, 독창성으로 하여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우리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혁명가극들인 《피바다》, 《꽃파는 처녀》, 《밀림아 이야기하라》, 《당의 참된 딸》, 《금강산의 노래》 공연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에 대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적극 이바지하였으며 주체적가극예술의 위력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였다.

보고자는 오늘 가극예술부문앞에는 어버이장군님의 주체적가극건설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할 중요한 임무가 나서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당의 요구를 창조실천에 적극 구현해나가고있는 모란봉악단의 모범을 따라배워 예술창조사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전무결하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우리 예술의 근본목적과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강성국가건설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불을 지피며 선군혁명위업을 힘있게 추동하는데 이바지할 가극작품들을 대담하게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구상과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불패의 사회주의강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연구기네전국위원회에서 8월 26일 불레찐을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 제목의 글들을 편집하였다.

불레찐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금으로부터 66년전인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였다.

창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발전해왔다.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를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국가로 일떠세우시였다.

주석의 위업을 이어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공화국을 사회주의보루로 더욱 튼튼히 다지시였다.

불레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패성에 대하여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용은 오늘 김정은령도자에 의하여 더욱 높이 떨쳐지고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정치군사강국으로서의 공화국의 지위를 더욱 튼튼히 다지시면서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강국건설을 진두에서 지휘하고계신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의 자위적국방력이 더욱 강화되고 군대와 인민이 반미대결전에서 새로운 승리의 력사를 새겨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원료의 국산화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쳐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자

수요자의 기쁨이자 생산자의 보람이다

평 양 양 말 공 장 에 서

우리 당이 중시하는 인민생활과 직결된 생산단위들의 경영활동목표는 어디로 지향되여야 하는가.

명실공히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인민들의 질적요구의 충족이다.

얼마전 평양양말공장을 찾았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느끼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공장들에서 현대화, CNC화를 적극 다그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여 생산을 정상화하며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여러가지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양양말공장은 절세의 위인들의 다심한 사랑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대중소비품생산단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두해전에 이어 얼마전 또다시 이곳을 찾으시고 생산조직과 경영활동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양말생산의 원자재국산화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제품의 실용성과 미적가치를 위한 질보장과 양말모안에 대하여서도 다심한 친어버이사랑을 기울이시였다.

지나온 나날에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의 령도업적이 깃든 단위답게 생산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체육인운동양말생산과 질보장에서 일대 혁신이 창조되였다. 이것은 결코 수월히 이룩된 결실이 아니였다.

우리 인민의 체질과 기호, 운동종목의 특성에 맞게 질좋고 쓰기에도 편리한 제품이 생산되던 나날은 어떻게 흘러온것인가.

차국철, 계광숙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기술자들이 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새 기술혁신창조의 기수가 되였다. 이들은 각이한 체육종목과 선수들의 체질에 따르는 최량화된 분석표를 완성하기 위해 해당 단위들을 찾아 고심어린 탐구의 길을 걷고 또 걸었다.

수요자의 기쁨속에 생산자의 영예와 보람이 있다는 소중한 마음안고 남모르게 바쳐온 헌신이 있어 운동양말의 질은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되였다. 결과 공장에서 생산된 운동양말은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우리 체육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제품의 가지수도 늘어난 속에 지난 6월에는 전국의 청소년체육학교들에 수만컬레의 운동양말을 생산하여 보내주게 되였다.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제품의 질제고에 보다 큰 힘을 넣어 그 결과가 인민들의 평가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하려는것이 공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분발해나섰다. 일군들이 한개 단위씩 맡고 내려가 기술자, 기능공들과 머리를 맞대고 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방도를 탐구하고 연구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있다. 모두의 앙양된 열의속에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기 위한 전망목표가 더욱 뚜렷해졌다.

공장에서는 기본생산을 내밀면서 가까운 기간에 제품의 질적장성을 이룩하기 위한 뚜렷한 기술발전목표를 내세웠다.

그 주되는 내용의 하나가 공장자체의 기술진영을 더욱 강화하여 기술주도형의 생산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제품의 질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는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을 남부럽지 않게 꾸리고 종업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기술기능수준을 더 높은 수준에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도 혁신적이다.

제품생산량을 늘이는것이 중심고리로 되였던 모든 경영활동은 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투쟁으로 확고히 전환되고있다.

질좋은 제품을 대하는 수요자의 기쁨이자 생산자의 보람이다.

이것을 자각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제품의 수요에 대한 연구사업에도 힘을 넣어 소비자들의 요구를 지체없이 생산에 반영하기 위한 주문생산체계를 확립하고있는것도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담보로 되고있다.

생산설비와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마음안고 해당 단위 과학자, 기술자들이 공장에 달려와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평양기계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 교원, 연구사들은 생산현장에 몸을 잠그고 기술혁신의 나날을 참답게 이어가고있다.

이들이 녀자양말생산공정을 더욱 현대적으로 완비하기 위해 내세운 단계별목표는 대단히 높다. 그만큼 설비의 현대화과정에 제기되는 애로도 적지 않다. 하지만 최동일, 윤철호, 유명근 동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사들은 열처리공정의 기술자, 로동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고성능설비의 설계 및 제작을 위한 1단계 기술혁신과제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관철하려는 이들의 열의는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하나의 의지로 고동치는 심장의 박동이 높을수록 이룩되는 성과도 크기마련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견인불발의 의지로 인민들의 수요가 높은 제품생산의 질제고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 해당 부문의 교원, 연구사,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머지않아 좋은 결실을 맺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지 원 철

3년만에 도약한 비결

류 정 은 하 피 복 공 장 에 서

류정은하피복공장이 꾸려진지 3년만에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활성화되고 국가에 커다란 리익을 주는 단위로 소문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자면 경공업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 이 공장종업원들의 기술기능은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러나 피복공장으로 첫걸음을 떼던 때까지만 하여도 공장에는 피복가공부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있는 기술자, 기능공이 적었다.

공장에서는 첫 사업의 화력을 기능공양성에 집중하였다.

종업원들을 어느 한 피복공장에 1개월동안 기술전습을 보내는 동시에 공장에 기능공학교를 내오기 위한 사업을 밀고나갔다.

기능공학교를 운영할수 있는 유능한 일군을 데려온 후부터는 공장자체로 기술자, 기능공양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격적으로 내밀었다.

처음 두개 작업반으로 피복가공을 시작하면서 눈썰미가 빠른 재봉공들을 선발하여 기능공학교에서 이들에 대한 기술전습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는 그들을 핵심으로 작업반을 4개 작업반으로, 얼마후에는 8개 작업반으로 늘이면서 선발사업을 재차 진행하여 기술자양성과 기능공양성을 동시에 내밀었다.

공장일군들은 기술자양성을 목적으로 선발한 종업원들의 과학기술교육도 품을 들여 다양한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 커다란 은을 내게 하였다. 피복가공기술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기술지도능력도 함께 키워주는 참신한 교육방법이였다.

이런 방법으로 공장에서는 기술자, 기능공양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여 2년후에는 수백명에 달하는 공장종업원의 절반이상이 기능공으로 자라났으며 30여명의 기술자들도 배출되였다.

이 과정은 생산자들속에서 높은 기술을 소유하려는 의욕을 비상히 높여준 좋은 계기로도 되였다.

모든 재봉공들이 한급이상의 기능을 소유하기 위해 스스로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피타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들의 열의에 맞게 일군들은 기술학습의 날운영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이 사업이 진지하게 진행되도록 이끌어주었다.

특히 제품생산이 작업반, 기대별로 전문화되는데 맞게 공정바꾸기를 합리적으로 하여 종업원들의 전반적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책략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공장의 기능공대렬은 날로 급속히 늘어났고 이와 함께 시간당 제품생산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지금 공장의 종업원들속에서 창의창발성이 남김없이 발휘되여 여러 생산공정이 합축되고있으며 한공정을 맡아보던 로동자들이 두개의 공정을 맡아보기 위한 투쟁을 벌리면서 로동생산능률이 훨씬 높아졌다.

이뿐이 아니다. 사입공, 천선별공, 연단공들은 자기 작업공정에서 반드시 절약예비를 찾고야 일감을 다음공정에 넘겨주는 원칙에서 일하는 기풍도 확립되였다.

이런 기풍에 의해 공장은 3년만에 피복가공에서 앞장선 단위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룰수 있게 되였다.

자기 단위의 사업을 어떤 각오와 실력으로 책임져야 하는가를 이 공장 지배인 박룡환동무의 경험은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 철 옥

실리보장의 열쇠—지방원료의 효과적리용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생필직장에서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생필직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중에는 갖가지 화분들도 있다.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되고있는 화분들은 최근에 수요가 대단히 높다고 한다. 비록 요란한 소비품은 아니지만 인민들의 평가가 높아질수록 이곳 생필직장 종업원들은 전국경공업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자기들의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한 긍지로 가슴부풀고있으며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신심있게 나아갈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를 막론하고 기본제품생산과 생활필수품생산을 다같이 밀고나가 맵시있고 쓸모있는 각종 소비품들을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지난 시기 이곳 생필직장에서는 파철을 비롯한 유휴자재를 리용하여 몇가지 철제품을 생산하는것으로 만족하였다. 지방의 원료원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질좋은 소비품을 생산할데 대한 당정책적요구를 깊이 연구체득하는 과정에 이곳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기업소에서 나오는 연재를 버리지 않고 전력생산에도 이바지하면서 소비품생산에 효과적으로 리용할 방도는 없겠는가.

문제를 이렇게 세우고 일군들이 종업원들에게 호소하니 여러가지 좋은 안들이 쏟아져나왔다. 그중에서 주목되는것은 기업소에서 다량 나오는 연재로 전력생산에 필요한 내화벽돌을 자체로 생산하자는 혁신적인 발기였다. 기업소에서는 로보수에 막대한 량의 내화벽돌을 항시적으로 요구한다. 그 많은 내화벽돌을 그때까지만 하여도 다른 단위에서 보장받군 하였다. 이것을 자체로 생산한다는것은 사실 대단한것이다. 더 흥미있는것은 소성로를 리용하여 자체로 도자기제품을 생산하자는것이였다. 모두가 호응해나섰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것은 도자기생산에 필요한 원료보장이였다.

이 문제를 놓고 직장장 조병남동무의 결심은 확고하였다. 철저히 지방의 원료원천에 의거하는것만이 최대한의 실리를 얻는것으로 되며 인민들이 실지덕을 볼수 있게 된다는것이였다. 한때 직장에서는 천리가 넘는 다른 도에서 원료를 가져다가 소규모적인 소성기지를 꾸려놓고 여러가지 도자기제품을 생산한 례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막대한 수송비로 하여 생산량을 늘일수 없는것은 물론이고 제품의 질도 보장하지 못하였었다.

이렇게 되여 도안의 여러 지역에 흔한 백토를 주원료로 하는 화분생산지표가 새롭게 개발되였다.

직장에서는 대담하게 생산공정을 새로 꾸리는데 달라붙었다. 우선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필요한 부속품들을 자체로 깎고 조립하면서 원료분쇄설비를 제작하였다. 이어 종전에 쓰던 소성설비를 완전히 들어내였다. 그리고 소성로의 열효률을 높이는 합리적인 방도를 연구하고 그것을 도입하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직장장부터 기술혁신에 발벗고나섰다. 여러차례의 실패도 있었다. 작업반장 리명철, 김승구동무를 비롯한 로동자들은 거듭되는 실패에도 주저앉지 않았다. 이들은 끝끝내 현대적인 소성로를 건설하고 내화벽돌과 화분을 동시에 생산할수 있는 공정을 그쯘히 갖추었다. 직장에서는 새로운 생산공정을 일식으로 꾸리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에 토대하여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소성로에 새로운 발열체를 받아들이는데 성공함으로써 로안의 온도를 종전보다 훨씬 높이였다. 지난 시기보다 소성로의 원료장입시간을 절반으로 줄였을뿐아니라 생산성을 무려 8배나 높이였다. 제품의 실수률도 훨씬 높아졌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킬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직장의 일군들은 더욱 분발해나섰다. 원료의 국산화실현을 종자로 틀어쥔 직장의 일군들은 얼마전에는 지방에 흔한 점토를 소성로의 대차깔판 원료로 리용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커다란 실리를 얻게 되였다.

본사기자 명 흥 숙

질좋고 맵시있는 구두를 더 많이

신 의 주 구 두 공 장 에 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신의주구두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구두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우고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질좋은 구두를 생산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혁신적인 안목을 지니고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하면서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사업을 전개해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제화흐름선의 이빠진 공정을 완비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올해에 동력재봉기, 접이기를 비롯한 많은 신발가공설비들을 새롭게 갖추어놓은데 맞게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이와 함께 작업반들에서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엄격하게 진행하도록 하여 대중의 생산의욕을 부쩍 높여주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여러가지 질좋은 구두를 생산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부단히 혁신하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있다.

구두갑피생산을 맡은 재단작업반과 재봉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사회주의증산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매일 맡은 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고있다. 이들은 매달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갑피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제화작업반과 시제품작업반의 로동자들도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기대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매일 자기들앞에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이들은 질제고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풀어나가면서 여러가지 형태의 질좋고 맵시있는 구두를 생산하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로동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힘있게 벌리고 혁신자축하모임도 의의있게 진행하면서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생산공정을 보다 완비하고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좋은 구두를 더 많이 생산하려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일터마다에서는 새로운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윤

맛있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수성천종합식료공장에서— 본사기자 신 충 혁 찍음

조선건축가동맹 제2차 대표자회 진행

【평양 9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건축가동맹 제2차 대표자회가 3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대표자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쓴 구호들이 대표자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또한 《건설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영웅적인 투쟁으로 선군시대의 창조물을 더 많이 일떠세우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오수용동지와 최영건내각부총리, 권성호국가건설감독상, 동정호건설건재공업상, 강영수도시경영상, 김경준국토환경보호상, 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들, 각 도동맹대표회들에서 추천된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대표자회는 시작되였다.

대표자회에서는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조선건축가동맹 규약개정에 대하여》,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지도기관선거에 대하여》를 토의문제로 결정하였다.

첫째 안건에 대한 보고를 심영학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하였다.

보고자는 주체93(2004)년 조선건축가동맹 대표자회가 소집된 때로부터 지난 10년간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고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데 대하여 말하였다.

일찌기 불후의 고전적로작 《건축예술론》에서 건축가동맹의 성격과 사명, 임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성국가건설에서 동맹의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동맹사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건축가동맹은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해올수 있었으며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조직으로 튼튼히 자라나게 되였다.

건축가동맹이 걸어온 지난 10년간의 력사에는 또 한분의 건축의 대가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이 뜨겁게 어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차례 건축가동맹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동맹이 건축가들과 건설기술자들의 사회적조직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고는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의 요구대로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이 보장되였으며 당의 후대관이 비낀 멋쟁이건축물이라고 높이 평가하여주시면서 우리 설계가들과 건설부문 일군들이 먼저 참관하고 야영소의 회관에서 미학토론회도 진행하도록 해주시였다.

동맹사업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동맹원들의 역할이 높아짐으로써 지난 기간 당의 웅대한 사회주의문명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이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보다 숭엄하고 완벽하게 꾸려지고 각지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동상이 정중히 모셔진것을 비롯하여 수령영생위업실현에서 우리의 건축이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리는 나날에 세계를 들었다놓은 《마식령속도》가 창조되여 짧은 기간에 은하과학자거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옥류아동병원, 류경구강병원 등 기념비적건축물들이 훌륭히 일떠서고 수도 평양시가 선군문화의 중심지로 꾸려졌으며 온 나라의 도시와 마을이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되여가고있다.

이 모든 성과는 전적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보고자는 강조하였다.

그는 전체 동맹원들과 대표자회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건축발전의 새시대를 펼치시고 건축가동맹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으며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은 사회주의강성국가,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며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보고자는 전체 동맹일군들과 동맹원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과 리론을 철저히 구현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건축가동맹창립 60돐을 맞으며 받아안은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선군시대의 자랑스러운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해마다 진행되는 5.21건축축전의 내용과 형식을 부단히 개선하며 다른 나라들의 최신건설기술과 공법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건축창조사업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함께 주체건축발전에 쌓아올리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과 당의 령도밑에 훌륭히 일떠선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널리 소개선전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밀고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전체 동맹일군들과 동맹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 주체건축창조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참답게 이바지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첫째 안건에 대한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방세영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건축예술론》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받들고 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과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당의 유일적령도를 생명선으로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며 선군시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동맹원들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도록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건축가동맹 평안북도위원회 서기장 리기철은 동맹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짜고들어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이바지할데 대하여, 황해북도위원회 서기장 리세건은 초급동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동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토론하였다.

국가설계지도국 부국장 정희철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신대로 건축창조에서 선 편리성, 선 미학성, 선 후대관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함경북도도시설계연구소 소장 함팡민은 설계의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 세계적수준을 릉가하는 건축물을 창조하도록 동맹원들을 적극 불러일으킬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수도건설위원회 참모장 리광선, 평양시인민위원회 국장 송혁은 기술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모든 건축물들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건설하며 지방건재수요를 자체로 보장하고 마감건재의 국산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평양건축종합대학 국토환경보호대학 학장 백남혁, 국가과학원 건축공학분원 부원장 조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실력있는 건축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며 건축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나라의 건축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최첨단수준에 올려세울데 대하여 말하였다.

중앙건설감독소 소장 석규, 함경남도인민위원회 국장 리귀열은 모든 동맹원들을 5.21건축축전에 적극 참가시켜 축전을 건축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며 건설감독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것이라고 하였다.

공업출판사 부장 황재평은 당의 의도에 맞게 잡지 《조선건축》의 편집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옴으로써 동맹원들을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는데서 나팔수, 선도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첫째 안건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이어 둘째 안건과 셋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개정한 조선건축가동맹규약이 채택되고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지도기관이 새로 선거되였다.

회의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대표자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수풍발전소 2발전직장 부문당위원회에서

기술기능을 높이는데 모를 박고

수풍발전소 2발전직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례 다녀가신 영광의 일터이다. 직장부문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의 중심을 장군님께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하여 주신 유훈관철에 두고 당사업을 심화시키고있다.

전력생산은 기술기능수준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 발전기를 조종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하기에 부문당비서 리명식동무는 직장장 명창순동무와 함께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부문당위원회에서는 3중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에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알심있게 내밀고있다.

우선 모든 로동자들이 자기가 다루는 설비를 깊이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이 사업은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당원들과 동맹원들에게 분공을 주는 방법과 기술학습의 날에 오랜 기능공들이 경험을 발표하게 하는 방법으로 끌고나갔다.

직장에서는 로동자들이 배워준 기술적내용을 깊이 파악하였는가 하는것을 모의시험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고는 매 사람들의 부족점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그를 퇴치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부족점이 있는 로동자들은 오랜 기능공들과 함께 여러가지 정황에 따르는 발전기조작을 능숙히 하도록 숙련을 부단히 진행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 발전기조작을 맡은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부쩍 올라가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되였다.

이렇게 한가지 문제를 해결한 부문당위원회에서는 로동자들이 전력생산을 더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목표를 내걸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리도록 하였다.

부문당위원회에서는 기술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리명일, 강인규, 김동원, 구창복동무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면서 모든 로동자들이 전력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하는 한가지이상의 기술혁신을 하도록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하였다.

이 나날에 직장의 로동자들은 10여건의 국가발명권을 받고 200여건의 기술혁신안과 창의고안을 받아들이는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부문당위원회에서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착실하게 짜고든 결과 전력생산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던것이다.

본사기자 리 종 석

위대한 후대사랑의 력사 천만년 길이 빛나리

절세위인들께서 지난 수십년간 수많은 교육단위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를 앞두고 온 나라 인민들과 교육자들, 학생들은 한평생 후대들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성스러운 한평생은 후대들을 위한 고귀한 혁명생애였다. 후대들을 사랑한다는것은 곧 미래를 사랑한다는것이며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후대들을 더 잘 돌보아주자는것이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후대관이였다.

조국의 미래인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하여 기울여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자욱자욱은 이 땅의 수많은 교육단위들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후대교육을 혁명의 계승자들을 키워내는 중대한 사업으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수많은 교육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랜 기간의 봉건적질곡과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랄비암아 지난날 매우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가 오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로 온 세계에 이름떨치고있는것은 수령님께서 해방직후부터 교육을 중시하시고 후대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어오신 결과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후대들을 위해 걸고걸으신 위대한 사랑의 수만리길은 수도 평양으로부터 머나먼 최북단과 분계연선지역, 깊은 산골과 바다가마을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에 뜨겁게 이어져있다.

그 길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후대들을 위해, 조국의 미래를 위해 주체교육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눈보라 몰아치는 강추위와 궂은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험한 령길을 넘으시며 학교들을 찾아주시였고 때로는 명절날과 휴식일에도 후대들을 위한 사랑의 길을 걸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험한 길을 헤치시며 터전을 잡아주시고 새로 일떠선 학교의 이름도 지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헌신의 자욱우에서 해방후 새 조선에서 삼흥의 종소리가 울려퍼졌고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한 만경대혁명학원과 민족간부양성을 위한 인민의 첫 종합대학이 일떠섰다.

후대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니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인민적인 교육시책들을 련이어 실시하시여 지난날 무지와 몽매에서 헤매이던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딸들모두가 마음껏 공부할수 있는 배움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후대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하도록 하시고 몸소 포연을 헤치시며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 학교들을 찾으시여 학생들에게 앞날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그 사랑의 자욱자욱과 더불어 한명의 병사가 천금같이 귀한 때에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싸우던 수많은 대학생들이 전선에서 대학으로 소환되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력사에 새겨지고 일하면서 배우는 독창적인 교육형태인 공장대학이 처음으로 태여났다.

전후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재더미로 된 조국땅우에 맨 선참으로 학교들을 일떠세워주시기 위하여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시였다. 몸소 학교터전까지 잡아주시고 수많은 건설장을 찾으시여 학교건설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풀어주시며 전사회적, 전인민적운동으로 학교건설을 다그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신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나날에도 온 나라 방방곡곡에는 재더미를 헤치고 학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으며 짧은 기간에 전쟁전에 있던 대학들이 모두 복구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아래 우리 나라에서는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기초건설의 나날에 전반적인 초등의무교육제와 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게 되였으며 교육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과 기술인재양성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은정깊은 사랑에 의하여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외진 산간마을과 섬마을을 비롯하여 그 어디에나 학교들이 세워지고 이 땅우에는 무료의무교육의 혜택아래 누구나 마음껏 배우는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가 마련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교육사업을 령도하시는 나날에 발표하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고 주체교육발전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 불멸의 기치로 빛나고있다.

조국의 래일을 위한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수많은 교육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신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우리 나라는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더욱 자랑떨치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은 언제나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속에 계시면서 그들모두를 은혜로운 사랑의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신 온 나라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자애로운 어버이, 학부형이시였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만난 학생들과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등교길에 오른 학생들의 책가방과 학용품을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지어 밥곽도 손수 열어보시며 친부모도 줄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걸으신 그 사랑의 길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의 완전한 실시를 선포하는 주체64(1975)년 9월의 개학날에 중구역 창전소학교를 찾으시여 나어린 학생들과 오랜 시간 함께 계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신 이야기도 있고 안주시 연풍고급중학교를 찾으시여 새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보시고 너무도 기쁘시여 한나절이 지나도록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손수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못 잊을 그 봄날도 새겨져있다.

어린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우리 학생소년들의 설맞이 공연을 해마다 보아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태양의 모습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뜨겁게 간직되여있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대학의 오랜 교수로부터 단발머리처녀교원, 유치원교양원들까지 만나주시고 그들을 직업적인 혁명가로 내세워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 전국교육일군대회에도 몸소 참석하시여 모범교원들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보시며 우리 교육자들이야말로 혁명가들이라고 높이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은 진정 우리 교육자들의 위대한 스승이시였다.

그 사랑, 그 은정속에 어디에나 마음껏 배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졌고 경치아름다운 명당자리마다에 학생소년들을 위한 궁전과 야영소들이 솟아났으며 몇명 안되는 산골마을 학생들을 위해 통학렬차, 통학뻐스가 달리는 사랑의 전설도 꽃펴났다.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골간들을 키워내는데도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하여 온 나라 대학들을 찾고 찾으시며 우리 조국을 떠메고나갈 지식인대부대를 키우신것은 조국과 혁명앞에 쌓으신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후대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대학현판에 몸소 불멸의 친필을 남기신 그 고귀한 업적은 주체교육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며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주체교육의 전통과 고귀한 업적은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선군시대에 더 활짝 꽃펴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 나날 교육건설과 혁명인재육성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준엄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시며 주체교육발전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다.

고난의 시기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걸음 늦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걸음 뎌진다는 고귀한 뜻을 사람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시며 수많은 학교들을 찾아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을 찾고찾으시며 혁명인재육성을 위해 기울이신 그 사랑, 전선시찰의 길에서 돌아오시는 길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새 세기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강성국가건설을 떠메고나갈 과학기술인재육성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도 환히 밝혀주신 그 날과 날들이 조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위인의 애국헌신의 한생을 뜨겁게 전하고있다.

새해의 첫날 이침 눈보라를 맞으시며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고 이듬해 정초에도 또다시 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갈 원아들을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은 오늘도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함흥화학공업대학, 청진광산금속대학, 함흥의학대학, 원산농업종합대학 등을 찾으시여 교육과 과학연구사업들을 료해하기도 하시고 오랜 교수들을 비롯한 교육자들을 과학과 기술로 우리 혁명위업실현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친 자랑스러운 지식인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고 크게 내세워주기도 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삼지연군 무봉고급중학교와 영웅강계장자산제1중학교, 락원군 서중고급중학교 등 여러 학교들을 찾으시여 친히 교수참관도 하시고 교양실들과 실험실습실들, 복도에 나붙은 직관교양자료들까지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지덕체의 억센 나래를 활짝 펼쳐주시였다.

이렇듯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숭고한 인생판으로 심장을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전선길은 언제나 학교길과 잇닿아있었다.

교육부문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현지지도는 우리 교육일군들과 교원들이 간고하고 준엄했던 시련속에서도 선군시대 주체교육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한 위력한 추동력으로, 우리 교육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그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킬수 있게 한 근본요인으로 되였다.

우리의 새 세대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이 투철한 선군혁명위업의 계승자들로, 현대적인 과학기술지식과 높은 창조적능력을 지닌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담당자들로 훌륭히 키우시여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가꾸어오신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과 혁명앞에 이룩하신 거대한 공헌이며 주체교육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후대사랑의 력사는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만경대혁명학원과 평양건축종합대학, 중구역 창전소학교 등에 대한 현지지도는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게 한 뜻깊은 현지지도였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육아원, 애육원도 찾아주시고 언제나 학생소년들과 함께 계시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태양의 모습을 우러르며 우리 인민과 학생들, 교육자들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더욱 뜨겁게 불타고있다.

한평생 현지지도의 길에서 후대들을 위한 위대한 사랑의 력사를 수놓으시며 조국과 민족의 래일을 위한 만년토대를 굳건히 마련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빛나고있으며 끝없이 이어지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우리 인민은 천만년 길이 전해갈것이다.

본사기자 공로혁

한치한치의 땅에 애국의 량심을 묻는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전투장에서

개척자의 영예를 어떻게 빛내였는가

인민봉사총국과 보건성돌격대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인민봉사총국과 보건성돌격대가 맡은 먹이풀판은 세포전역에서 해발고가 가장 높은 600m이상의 구릉지대에 있어 척박하고 가물과 큰물피해도 가장 많이 받는 지대이다. 그러나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에 간직한 돌격대들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며 먹이풀판을 풍요하게 가꾸어 한해동안에 자주꽃자리풀, 오리새, 토끼풀 등의 정보당 생산량을 수십t으로 늘임으로써 개척자의 영예를 빛내였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과학적담보는 혁신창조의 돌파구

먹이풀씨뿌리기를 앞둔 지난 어느날이였다. 일군들은 계절습지대에서의 재배형식을 놓고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대다수가 두둑식재배방법을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사실 두둑을 짓고 씨를 뿌리면 다른 포전보다 풀판면적이 조금 줄어들어 생산량이 적어지지만 대신 습해를 막으면서 안전하게 먹이풀을 생산할수 있었다. 하지만 정치일군인 한경수동무의 생각은 달랐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대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우리 식의 대규모축산기지를 건설해야 하였기때문이였다. 그런데 조건이 불리하다고 저수확지를 만들어놓으면 당정책관철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었다.

—당의 뜻대로 생눈길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척후병이 되자.

이렇게 결심한 그는 즉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을 찾아 떠났다. 현실성있는 방도가 안받침되지 못한 목표는 주관적욕망에 지나지 않으며 실천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기때문이였다.

그는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과 습지대의 토양분석자료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미처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였다. 그것은 먹이풀이 종류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있다는 사실이였다. 토끼풀이 습해에 견딜성이 강하다면 오리새나 자주꽃자리풀은 가물견딜성이 높았던것이였다. 적지적작의 요구대로 품종을 배치하면 재배형식을 달리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먹이풀판을 조성할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것은 과학기술을 떠나서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문제였다. 그는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인 서철호동무와 함께 개간지에 나갔다. 그리고 습지대에 토끼풀을 심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찾았다. 또한 기술적지도를 앞세우며 돌격대원들을 불러일으키였다. 결과 습지대도 다수확포전으로 만들수 있게 되였다.

과학적타산을 앞세워 큰물로부터 경사지포전을 보호하면서 먹이풀생산을 늘인것도 혁신적이다. 경사지포전에 배수체계를 세우면서 일군들이 뿌리활성을 높이고 배수로에서도 먹이풀을 자래우는것이였다. 그것은 먹이풀이 뿌리만 깊숙이 내리면 그 어떤 큰 물에도 끄떡없었고 지난 시기 장마철에 묵이던 땅을 리용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치밀한 작전에 따라 돌격대원들은 린성분을 보충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였다. 그리고 예비모판을 만들어 장마가 끝난 후 배수로에도 먹이풀을 심었다. 그리하여 경사지포전의 정보당 먹이풀생산량도 높이였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창조적지혜

보건성돌격대 일군들이 먹이풀판을 조성하면서 중시한것은 가물을 이겨내는 문제였다. 그것은 먹이풀판이 해비침률이 높은 구릉지대의 등성이에 있어 다른 포전들보다 가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때문이였다. 그렇다고 어쩔수 없는 일로 미루어놓으면 선군조선의 강성부흥과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앞장에서 열어갈 영예로운 임무를 맡고있는 개척자의 영예를 빛내일수 없었다. 일군들은 이 문제해결의 방도를 창조적지혜를 발휘하는데서 찾고 실천해나갔다.

모기르기에서 혁신한 사실을 놓고보자. 돌격대장 김동건동무는 일군들과 기술학습을 하는 과정에 먹이풀모를 빨리 자래워 포전에 낼수록 그만큼 가물견딜성이 강해진다는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그러자면 싹트는 기간을 앞당겨야 하였다. 그는 즉시 일군들과 지혜를 합치였다. 좋은 방도들이 나왔다. 그들은 여기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토의한 후 일정계획을 세우고 기술적지도에 힘을 넣었다. 결과 싹트는 기간을 훨씬 줄임으로써 모를 일찍 자래워 종전보다 며칠 앞당겨 먹이풀모심기를 끝낼수 있었다.

일군들은 조건이 불리할수록 돌격대원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하여 가물과의 전투를 내밀었다.

김매기가 시작되면서 가물은 더 심해졌다. 높은 기온에 땅겉면이 달아오르고 센 바람이 잦아져 어쩌다 조금 내린 비도 순간에 말라버리였다. 일군들은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애국의 열정을 적극 불러일으키며 가물을 이겨낼 방도를 찾아나갔다. 돌격대원들은 저마다 혁신적인 김매기방법들을 내놓았다. 어린 모시기에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기때문에 가물을 탈수 있으므로 흙을 긁지 않고 김만 잘라버려야 한다는것, 뿌리가 깊이 내린 후부터는 북을 돋구는 방법으로 김을 매면 가물을 이겨내는데 효과적이라는것 등…

일군들은 즉시 그에 기초하여 김매기전투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단위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였다. 혁신적인 안들은 가물과의 전투에서 은을 내였다.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는 과정에 일군들은 포전별로 정보당, 포기당 물공급량을 확정하였으며 물을 줄 때 잎을 적시면 먹이풀이 가물을 더 탈수 있다는데 주의를 돌리고 물주기전투도 실속있게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100여일동안 가물이 계속되였지만 먹이풀을 왕성하게 자래울수 있었던것이였다.

조건이 아무리 불리하여도 과학적담보를 찾아쥐고 창조적지혜를 높이 발휘할 때 어디서나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다. 바로 이것이 인민봉사총국과 보건성돌격대가 개척자의 영예를 빛내인 비결인것이다.

적극적인 실천, 헌신적인 일본새

도지류실을 막은 배수로치기

륙해운성돌격대가 올해에 조성할 먹이풀판구역에는 경사각이 12° 이상 되는 비탈진 포전들이 10여정보나 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이곳 일군들은 큰물피해막이대책을 세우면서 이런 포전들에 대한 배수로째기에 남달리 원심을 썼다. 지난해의 경우를 놓고보면 산기슭의 일부 비탈진 포전들에 째놓은 배수로들의 바닥과 벽에서 적지 않은 량의 흙이 씻겨내렸기때문이였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니 포전배수로를 등고선과 수직방향으로 째준데 그 원인이 있었다.

사실 이렇게 배수로를 째주면 갑자기 불어난 비물을 인차 기본물길로 뽑아버릴수 있다. 그러나 배수로들의 시작점과 기본물길입구와의 거리가 짧기때문에 일단 내리쏠리기 시작한 비물의 흐름속도는 아래쪽으로 가면서 매우 빨라지게 된다. 결국 배수로바닥과 벽에서는 일정한 량의 흙이 센 물살에 의하여 씻겨내리게 된다. 포전들마다 이런 배수로들이 수없이 많다고 할 때 거기서 류실되는 흙량은 실로 적다고 볼수 없다.

그들은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와의 련계밀에 등고선과 배수로사이의 방향각을 새롭게 정하였다. 즉 방향각을 포전경사각이 12° 인 경우에는 60° 정도로 하고 비탈이 심해지는데 따라 등고선과 배수로사이의 각도차이를 점차 줄이는 방향에서 30° 까지 정하였다. 또한 포전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종전과 같은 규격의 배수로들을 째주며 차단 및 돌림물길만들기도 동시에 잘 해나가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좋았다. 순간에 불어나군 하던 많은 량의 비물을 지장없이 뽑아버리면서도 물흐름속도가 종전보다 훨씬 뎌져 비탈진 포전에서의 토지류실현상을 극복할수 있었다. 또한 장마철기간 기본물길과 배수로관리에 동원되군 하던 로력을 다른 작업에 집중시킬수 있게 되였다.

수십명 로력을 대신한 김매기방법

식료일용공업성돌격대에서 김매기가 시작된 때였다. 풀의 종류에 관계없이 농약효과를 나타내는 살초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리용하겠는가. 이 문제를 놓고 이곳 일군들인 박철호, 리성식동무들은 어느 날 작업의 쉴참에 돌격대원들과 마주앉았다.

그때 돌격대초급일군들인 박영성, 서혜영동무들이 분무기에서 살초제가 뿌려지는 면적을 제한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안을 내놓았다.

기발한 착상이였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즉시 2대의 분무기를 가지고 이 방법을 시험해보도록 하였다. 현재의 먹이풀판조건에서는 밑등을 따낸 0.5L짜리 수지물병을 분사구부분에 결합시키고 그 밑면과 땅웃면사이를 3㎝정도로 보장하는것이 제일 효과적이였다.

이에 기초하여 그들은 1㎏의 살초제를 일정한 량의 부착제와 혼합하고 이것을 130L정도의 물에 풀어 분무기에 넣은 다음 어느 한 먹이풀판구역에 뿌려보도록 하였다. 3일정도 지나서 그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한주일후에는 그곳의 잡초가 모두 제거되였지만 먹이풀들은 아무런 지장없이 잘 자라고있었다.

일군들은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와의 련계밀에 그 과학적담보를 확증한 조건에서 이 방법을 대부분의 면적에 받아들였다. 결과는 좋았다.

특히 이 살초제를 리용하여 얻어진 로력예비는 결코 적지 않았다. 이곳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종전에는 한정보의 먹이풀판에 대한 김매기를 하루동안에 끝내는데 보통 30여명의 로력이 동원되였다면 이제는 그만한 량의 작업과제를 한명의 돌격대원이 얼마든지 해제낄수 있게 되였다고 한다.

명령집행은 병사의 생명

조선인민내무군 김영근소속부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군인정신에서 중요한것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집행에 대한 무조건성입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 위훈의 날과 달을 보내는 조선인민내무군 김영근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앞에 새로운 전투목표가 정해졌다. 단 두달동안에 1 000여m 도로구간의 폭을 종전보다 1.5배로 넓히고 경사도를 훨씬 낮추어야 하는 방대한 과제였다.

기존공법대로 한다면 반년이상 걸려야 하는 공사량이였다. 하지만 군인건설자들은 공사에 앞서 그 가능성여부를 따지지 않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전투명령은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는것이 그들의 신념이고 의지였다.

긴급히 소집된 협의회에서 부대지휘관은 긴말을 하지 않았다.

《명령집행은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공사과제를 무조건 제기일에 끝냅시다.》

드디여 총돌격을 알리는 힘찬 구령소리와 함께 모든 구분대들이 일제히 전투에 진입하였다. 여러가지 합리적인 공법들이 도입되는 속에 련일 혁신이 창조되였다.

도로를 가로질러 흐르는 개울우에 아치식의 큼직한 땅속도랑을 만들어주자는 안이 제기되였을 때였다. 10여t의 철근과 많은 량의 세멘트를 절약하면서도 공사기일을 훨씬 앞당길수 있는 혁신적인 안이였지만 결사전을 각오해야 하였다. 더우기 장마철인것만큼 작업과정에 예견치 못했던 일이 생길수도 있었다.

하지만 군인건설자들은 주저없이 떨쳐나섰다.

군인건설자들은 차오르는 물을 련속 퍼내면서 기초파기를 다그쳐나갔다. 함마로 정대를 내리칠 때마다 암반에서 떨어져나오는 돌조각들이 물과 함께 얼굴로 사정없이 날아들었지만 군인건설자들의 전진속도는 변함이 없었다. 애국적열정을 안고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온 이들은 땅속도랑공사를 한주일 남짓한 기간에 해제끼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인건설자들의 정신력이 총폭발되는 가운데 도로의 면모는 하루가 다르게 일신되여갔다.

불같은 충정과 애국적열정을 지니고 한m한m의 도로구간에 생의 자서전을 새겨온 이들은 끝끝내 3만여㎥나 되는 토량처리, 도로옆의 경사면에 대한 수천㎡의 돌입히기, 1만여㎡의 골재운반 등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여 지난 8월 25일까지 맡겨진 전투과제를 기본적으로 결속하는 위훈을 떨쳤다.

청춘의 열과 정을 쏟아부어 사회주의재부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앞당겨 실현하는 길에서 청춘의 리상과 포부를 꽃피울 총정의 마음을 간직한 청년돌격대원들이 풀판조성과 대상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떨쳐나가고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들끓는 현장에 지휘부를 전개하고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의 어렵고 방대한 전투과제를 청년들이 앞장서 해제끼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철도성려단의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대상건설과제수행에로 청년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우등불모임, 시랑송발표모임, 노래모임 등을 자주 조직하고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힘있게 벌려 건설장마다에서 전투적기백이 넘쳐나게 하였다.

자강도려단 동신군대대의 청년들은 나흘동안에 350여m의 배수로와 700여m의 도로공사를 해제꼈다. 통림군대대 청년들은 자체의 힘으로 철근,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자재를 확보하여 맡겨진 집짐승우리층막콩크리트치기를 몇시간동안에 해제꼈다.

황해북도려단에서는 청년돌격대원들이 자체로 석회로를 건설하고 1 000여t의 소석회를 생산하여 포전에 실어내였다. 1 300여t의 린회토운반전투에 앞장선 함경북도려단의 청년들도 지력을 높이는데서 한몫하였다. 원유공업성돌격대 청년들은 몰탈혼합기를 창안제작하여 대상건설과제를 앞당겨 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갈 뜨거운 마음을 간직한 상업성, 경공업성돌격대의 청년들은 유기질비료운반을 도맡아 해제끼였다. 그리고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와의 련계밀에 풀판조성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병충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워 먹이풀생산에 앞장섰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안아온 사회주의대초원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이

청춘의 값높은 삶을 더욱 빛내여갈 붉갈은 마음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속에 커가는 인민의 기쁨

8남매 가족과 51개의 대학졸업증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얼마나 좋은가!

이 땅의 어느 누구의 가슴을 헤쳐보아도 이런 고마움이 꽉 차있다.

그 격정의 토로속에서 우리는 발명총국에서 일하는 리기일동무의 8남매가족에게 51개의 대학졸업증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집단의 위력을 적극 발양시킬뿐아니라 사람들의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며 그 리한 싹을 적극 조장시키고 발전시켜나갑니다.》

복속에서 복을 모른다고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리기일동무는 자기 가정의 대학졸업생이 몇명인지 잘 모르고있었다고 한다.

8남매가 다 대학을 나왔고 남편들과 안해들도 다 대학졸업생들이며 자식들속에서도 나날이 대학졸업생수가 늘어난다는것만 알았지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따져볼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한 리기일동무의 막내딸 리선향동무가 우리 가족친척들중에 대학졸업생이 마흔명은 실히 되는것 같다고 말하는것이였다.

《마흔명씩이나? 글쎄 모두들 대학을 나오긴 했다만 그렇게까지 많으냐?》

리기일동무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던 그는 큼직한 종이를 펴놓고 8남매의 이름을 차례로 적은 다음 매 가정의 대학졸업생수를 깐깐히 계산하여보았다. 맏형님네가 8명, 둘째형님네가 6명, 맏누이네가 6명, 둘째누이네가 4명…

이런 식으로 합계를 내여본 그는 눈이 휘둥그래졌다. 대학졸업생이 모두 48명이였던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그 집 부모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고 호기심이 나하였다.

우리가 리기일동무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한 질문도 바로 그것이였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말입니까?》

리민숙녀성이 부모들에 대한 추억을 더듬었다.

《해방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떠돌아다니며 삯일을 하던 품팔이군들이였습니다. 학교란 문전에도 가보지 못하였구요.》

지주집머슴을 살던 그들의 아버지는 14살이 되던 해에 공부하고싶은 열망을 안고 지주집을 뛰쳐나왔다. 자식들의 입에 풀칠조차 하기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학비를 대주지 못한다는것을 알고있는 그는 자기 힘으로 학비를 벌 생각으로 온갖 일을 닥치는대로 하였다. 하지만 끝내 글 한자 배울수 없었다. 그와 한가정을 이룬 처녀도 신세가 다를바 없었다. 그들부부는 자기들의 가슴에 끓던 배움의 열망을 자식들의 앞길에 였었다. 하지만 네 자식이 태여나 공부할 나이가 지나도록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였다.

해방후 그들부부와 네 자식은 한날한시에 학생이 되였다. 교정은 모두 달랐다. 소학교, 중학교, 성인학교로!

배움의 희열로 벅차던 그 나날 아버지는 항상 이런 말을 외웠다.

《얼마나 좋으냐, 제 나라의 말과 글, 력사를 마음껏 배울수 있는것이.》

그들가정에 또 네 자식이 태여났다. 하지만 해방전과는 달리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에는 함박꽃같은 웃음이 넘실거리였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먹일 걱정, 입힐 걱정은 물론 공부시킬 걱정마저 없으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딸들을 위해 훌륭한 종합대학을 일떠세워주시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 리기일동무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였다.

《공부 잘해서 대학에까지 가거라. 아무렴, 우리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새 나라에서야 우리 같은 백성의 자식들도 얼마든지 대학에 갈수 있지.》

그 당부를 안고 맏아들이 전쟁이 끝난 후 평양기계대학에 입학하였다.

자식들의 대학에로의 길은 끊없이 이어졌다. 넷째는 김일성종합대학, 둘째는 평양건설건재대학(당시), 셋째와 여덟째는 평양의 학대학(당시), 다섯째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여섯째는 정준택원산경제대학으로.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 8남매의 자식들도 모두 대학공부를 하였다. 그 나날속에는 뛰여난 수재들을 전적으로 나라에서 맡아키워주는 고마운 교육제도에 의하여 8남매의 자식들이 줄지어 평양제1중학교에 입학한 사실도 있다.

《현재 여러명의 손자손녀들도 대학에 다니고있습니다. 마치 우리 집은 대학을 나오는것이 하나의 가풍으로 된것만 같습니다.》

대학을 나오는 가풍!

이 얼마나 좋은 가풍인가.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굳건히 담보해주는 이런 훌륭한 가풍을 세상사람들도 부러워하고있다. 리기일동무의 둘째형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였다. 그와 면담을 하던 그 나라의 학자들은 가문의 수십명이 모두 대학졸업생이라는 말을 듣고 당신네한테는 돈이 대단히 많은 모양이라고 하였다.

《우리 8남매가정의 수십명이 돈 한푼 내기는커녕 오히려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믿을수가 없었던것이다.

48명의 대학졸업생에 51개의 대학졸업증을 가지게 된것은 리기일동무의 맏딸을 비롯하여 대학을 두개나 나온 사람들도 있기때문이다.

이들의 직종은 참으로 다종다양하다. 과학자, 교원, 기자, 재정일군도 있고 인민군군관과 인민보안원, 체육인도 있다. 발명증서가 수두룩한 리기승동무와 같이 이름난 발명가도 있고 30여년세월 교단에서 삶을 빛내이고있는 최영순동무와 같은 학위학직소유자들도 있다.

8남매가족성원들의 머리가 남달리 좋아서인가.

그들은 한결같이 대답하였다. 아니라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정말 좋아서라고.

해방전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한 부모들과 51개의 대학졸업증을 받은 자손들!

이것은 별로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해방후 고마운 제도에서 까막눈을 뜨고 세대를 이어 문명의 세계로 치달아오른 우리 인민의 높은 지성도와 긍지높은 생활을 보여주는 한 화폭일뿐이다.

글 본사기자 허명숙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개천탄광기계공장 공업시험소 실장 선우윤명동무의 생활에서

어제날의 용해공이 공훈과학자로

선우윤명동무의 나이는 올해 75살이다.

용해공으로 로동의 첫발을 떼였던 그가 오늘은 공장에서 며받들리우는 로동자발명가가 되여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2.16과학기술상수상자, 공훈과학자, 창의고안명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인테리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공장에서 로동의 첫걸음을 떼고 용해공으로 일하던 나날 선우윤명동무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였다.

대학졸업후 기사자격을 받은 그는 용선로작업반 기술공정원으로, 그후 공업시험소 연구사로 일하였다. 그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늘 작업복차림에 이른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에서 돌아가는 그를 그저 책임성높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였다.

공장에서 살다싶이 하는 그에게 집사람들이 무슨 큰 발명이라도 하려고 그러느냐고 핀잔을 줄 때면 그는 《못할것도 없지요.》라고 말하며 웃어버리기가 일쑤였다. 그러더니 정말 무엇인가 새로운것을 창안해내기 시작하였다. 그의 새 기술혁신안이 통과되여 생산에 도입되였다는 소식이 한달이 멀다 하게 그가 사는 마을에 전해졌던것이였다.

《당신 정말 발명가가 되긴 되였구려.》

안해가 이런 말을 할 때면 그는 대학에서 배우고 현장에서 실천하니 이렇게 좋은게 또 어디 있겠소, 다 고마운 제도덕이지라고 대답하군 하였다.

그후 그는 더 많은 사색과 탐구의 낮과 밤을 보내였다. 어떻게 하면 석란증산에 이바지할수 있는 대상설비들을 더 많이 창안제작하겠는가, 원가를 줄이면서도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방도는 무엇인가에 대해 늘 사색하며 연구사업을 진지하게 벌려나갔다.

그 나날 선우윤명동무는 《쇠물련속주조에 의한 철판생산》을 비롯하여 7건의 국가발명권을 받았고 15건의 창의고안증서와 20여건의 새 기술도입증을 받았다. 나라에서는 이런 그에게 2.16과학기술상을 수여해주었으며 공훈과학자라는 값높은 칭호도 안겨주었다.

오늘도 그는 새로운 연구종자를 안고 연구사업에 열중하고있다.

그런 그를 두고 사람들은 로쇠를 모르는 정열가라고 한다. 사색과 탐구로 이어진 생활이 그로 하여금 그렇듯 희망과 열정에 넘치게 하는것이다.

용해공출신의 공훈과학자 선우윤명동무, 그는 우리 조국의 고마운 교육제도가 낳은 또 한명의 지식경제시대의 주인공이다.

본사기자

배움의 전당에 울리는 고마움의 노래

인민대학습당을 찾아서

《길동무가 좋으면 먼길도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 연구과제를 받을 때마다 꼭꼭 찾군 하는 인민대학습당은 성공에로의 먼길도 질러가게 해주는 좋은 길동무, 배움의 집입니다.》

인민대학습당의 계단을 함께 오르며 국가품질감독위원회의 한 연구사가 한 말이다.

길동무!

무엇인가 깊은 생각을 불러오는 그의 말을 새기며 우리는 어서 오라 부르는듯 활짝 열려진 중앙홀정문으로 들어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학습당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사회교육기지이며 근로자들의 통신종합대학입니다.》

중앙홀에 들어서니 한켠에 주런이 놓인 콤퓨터들에서 많은 독자들이 한창 목록검색중이였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정보산업시대와 더불어 날마다 봉사수준을 높여가고있는 인민대학습당의 발전면모를 느낄수 있었다.

1층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로작을 학습할수 있는 열람실과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의 도서들을 열람할수 있는 열람실, 문답실이 있었다.

문답실에서 강사 김선향동무는 근로자들이 열람을 하거나 학습을 하다가 모를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를 찾아와 물어볼수 있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단번에 800명을 수용할수 있는 강의실과 통보실 등 여러 방들을 돌아본 후 2층에 있는 열람실들에도 들려보았다.

수학, 물리학, 력학, 생물학, 천문학, 지질학, 화학 등 기초과학도서들을 열람할수 있는 5호열람실에는 《지리사전》, 《버섯사전》, 《사계절음식료법》 등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보내주신 도서들도 많았다.

8호열람실에서 우리의 눈에 띄운것은 《우리 독자대장》이라는 부피두툼한 책이였다. 대장에는 이곳을 자주 찾는 단골독자들의 이름이 빼곡이 적혀있었다. 동행한 일군은 우리에게 지방에서도 많은 독자들이 찾아오고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가르쳐주신것처럼 인민대학습당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중심기지이며 근로자들의 통신종합대학, 전민학습의 대전당이라고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홈페지열람이며 자료검색을 마음껏 할수 있는 전자열람실과 번역자료, 복사필림, 록화 및 록음자료, 음악감상 등을 봉사받을수 있는 여러 방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학습당의 모든 봉사가 당과 국가의 특별한 관심속에 진행되고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인민대학습당건설을 위한 착공의 첫날로부터 수십년세월 어느 하루 전민학습의 대전당에 당의 사랑이 미치지 않은 날이 있었던가.

귀한 책, 새 자료가 나올 때마다 인민대학습당에 우선적으로 보내주도록 하시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봉사활동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신 어버이장군님,

어버이장군님의 그 숭고한 뜻을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래일에는 경치좋은 쑥섬에 또 하나의 전민학습의 대전당, 과학기술전당이 솟아날것이라고 생각하니 우리의 눈앞에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거창한 흐름속에 모든 사람들이 최첨단을 향하여 더 힘차게 나아갈 그날이 보이는것만 같았다.

오늘도 좋지만 더욱 희망찬 래일에 대한 확신을 안고 최첨단의 세계를 파고들어가는 행복한 근로자들,

광활한 미래에로 달음쳐가는 그들에게 더 훌륭한 길동무가 태여나게 될것이라는 생각에 우리의 가슴은 부풀어올랐다.

길동무!

지식의 탑을 높이 쌓아가는데서 성공의 지름길을 가르쳐주는 훌륭한 길동무—인민대학습당, 정녕 그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만이 낳을수 있는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이런 생각으로 인민대학습당을 떠나는 우리의 귀전에 울리는 배움의 종소리는 마치 어머니당에 드리는 인민의 감사의 노래처럼 들려왔다.

본사기자 오은별

‖수필‖ 세상에 없는 요람

얼마전 보통교육성의 한 일군을 만났던 나는 우리 나라에 1 800여개의 분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말그대로 분교도 학교이다. 학생이 3명이든 4명이든 그들을 위해 교원이 있어야 하고 교실은 물론 실험실이 있어야 하며 교구비품이 있어야 한다.

그런 분교가 1 800여개나 된다니 그에 얼마만 한 자금이 들었겠는가.

나의 속생각을 넘겨짚기라도 한듯 보통교육성 일군이 말하였다.

이런 일은 우리 나라 교육제도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자면 교육사업에 힘을 넣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교대자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취재길에서 돌아오는 나의 머리속에는 언젠가 사리원시를 찾았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1월말 연탄군 성산리(당시)를 찾으시였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산골마을아이들도 친히 만나주시였다.

아이들을 몰가까이 부르시여 어느 학교에 다니는가, 학교가 어느쪽에 있는가를 다정히 물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교가 멀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힘들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멀고 험한 등교길을 걱정해주시였다.

잠시후 아이들에게 최우등을 했는가고 또다시 물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진작 여기에 분교를 세워주었더라면 아이들을 고생시키지 않았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시급히 분교를 세워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때 난감한 기색을 보이며 이 마을에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불과 10명도 되나마나 하다고 말씀올리는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마디마디에 힘을 주시며 나라의 장래문제를 어떻게 아이들의 머리수에 비교해서 처리하겠는가, 우리가 이 추운 겨울날 쉬지 못하고 다니는것도 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한것이다, 단 한두명의 어린이가 이 마을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꼭 분교를 세워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마을에는 10명도 못되는 아이들을 위한 분교가 일떠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에 떠받들려 일떠선 분교가 비단 이 산골마을의 분교만이겠는가.

년대와 년대를 이어가며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물론 새 세기에도 조국땅 곳곳마다에 몇명 안되는 학생들을 위한 분교들이 련이어 일떠서 학교가 학생들을 찾아가는 사랑의 력사는 끝없이 이어져왔다.

언제나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는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오늘 분교들의 모습은 나날이 변모되고있으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도 더욱 개선되고있다.

지난해 천도개벽된 무도영웅방어대를 찾으시여 6명의 어린이들을 위한 무도유치원과 4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순위고급중학교 무도분교를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재도방어대에 있는 3명의 어린이들을 위한 유치원을 돌아보면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이런 유치원과 학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이 일떠설수 있는 세상에 다시 없을 요람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세상에 다시 없을 요람!

바로 이 요람속에서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마음껏 배우며 미래의 역군으로 훌륭히 자라나고있다. 하기에 언제인가 서해의 작은 등대섬 마을의 분교를 찾았던 한 외국인은 이렇게 말했다.

《학교가 학생들을 찾는 나라는 오직 조선뿐일것입니다. 주체의 나라로 만방에 빛을 뿌려가는 귀국의 무궁번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후대들을 귀중히 여기고 후대교육사업에 모든것을 아낌없이 돌리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조선의 양양한 미래가 있는것입니다.》

그렇다. 세상에 다시없을 요람을 놓고도 우리는 긍지높이 말하게 된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있어 우리 조국의 미래는 창창하다!

본사기자 홍성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경축 조로우표수집전시회가 진행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경축 조로우표수집전시회가 평양에서 진행된다.

조선우표애호가동맹과 로씨야민족우표수집아까데미야의 공동주최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조선우표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의 우표수집가들이 수집한 우표들이 전시되게 된다.

전시회는 공화국창건일을 뜻깊게 경축하며 두 나라 우표수집가들과 인민들사이의 친선과 교류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총련일군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허명도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일군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성원들은 이 력사의 집에 깃들어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은 주체혁명위업의 개척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대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은 길이 빛나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 제23차 전체대회에 보내주신 력사적인 축하문을 높이 받들고 애족애국운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겠다.

대표단은 또한 국가선물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옥류아동병원, 문수물놀이장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통적인 민속명절-추석

오는 9월 8일은 음력으로 8월 15일로서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전통적으로 쇠여오는 민속명절인 추석이다. 추석은 가을저녁이라는 뜻으로서 오곡이 무르익는 가을철의 달밝은 보름날을 명절로 즐기던 데로부터 생겨난 이름이다. 이날을 가위날, 한가위날이라고도 불렀다.

《삼국사기》와 《동국세시기》를 비롯한 여러 력사기록들에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이 추석명절을 쇠여온 풍습자료들이 서술되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속에서 민속적으로 전해오는 좋은 관습들에는 민족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적풍모와 정서가 반영되여있습니다.》

추석은 전통적인 민속명절가운데서 우리 인민의 고유한 풍습을 제일 많이 반영하고있는 민속명절이라고 볼수 있다.

대대로 내려오는 추석날의 첫 의례는 조상의 무덤을 돌아보는것이다. 먼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은 추석날에 햇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조상의 무덤을 찾는것을 응당한 도리로, 전통적인 풍습으로 지켜왔다. 이날 사람들은 명절옷차림을 하고 조상의 묘를 찾아가 풀베기 등 무덤손질을 한 다음 제사를 지냈다. 제사가 끝나면 둘러앉아 선조들의 생전에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음식을 나누어먹으면서 화목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추석날에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 벌초도 하고 제사를 지내는 풍습에는 예로부터 례절이 밝고 의리가 깊은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풍모가 반영되여있다.

다채로운 민속음식들이 추석날의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송편과 밤단자를 들수 있다. 송편은 솔잎을 깔고 찌는 떡이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추석날의 송편에는 주로 햇콩, 참깨, 밤, 대추같은것을 소로 넣었다. 밤단자는 률단자라고도 하였는데 찹쌀가루를 쪄서 닭알처럼 둥글게 빚고 거기에 꿀에 개인 삶은 밤을 고물로 묻힌것이다. 이날 평양일대에서는 찹쌀, 차조 등의 가루를 쪄서 길금에 삭혀 지진 노치를 먹었다.

씨름, 바줄당기기, 활쏘기, 그네뛰기, 소놀이, 거부기놀이, 길쌈놀이 등과 같은 다채로운 민속놀이들과 저녁의 보름달구경 풍습도 명절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추석날 저녁 높은 산에 오르거나 집마당에 멍석을 펴고앉아 유난히도 밝은 둥근달을 바라보며 소박한 꿈이 담긴 시와 노래로 즐기던 우리 인민의 달구경풍습에는 다정다감하고 정서가 깊은 민족의 내면세계가 잘 반영되여있었다.

전통적인 추석명절풍습은 로동당시대에 더욱 활짝 꽃펴나고있다.

우리 인민은 오늘도 해마다 추석을 맞으며 꽃다발이나 음식을 준비하여가지고 묘소를 찾아가 인사를 올리고 조상의 생전의 일들을 회고하면서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일을 더 잘 하리라 마음다지면서 명절의 하루를 뜻깊게 보낸다. 우리 인민의 이러한 정신도덕적풍모와 정서는 올해의 추석날에도 고상하고 아름다운 화폭들을 펼쳐보일것이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실장 임승빈

한 어머니의 진정

우리 사회, 우리 시대는 고상한 인생관을 지닌 인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충만되여있다.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도록 영예군인들을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극진히 돌봐주고있는 대동강구역 문수3동 39인민반에서 사는 김재실녀성도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들중의 한 사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존대하는것은 총대로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의 전통이며 우리 사회의 고상한 정신도덕적기풍입니다.》

그가 대동강구역 문수1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최수길동무를 알게 된것은 2008년 어느날이였다. 늘 친자식처럼 돌봐주던 한 영예군인을 통하여 문수1동에도 심하게 몸을 다친 영예군인이 있다는것을 알게 된 김재실녀성은 그날로 그의 집을 찾았다.

보고싶어 들렸다고 하면서 영예군인의 생활형편이며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뭐니뭐니해도 식사를 짱짱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이제부터 자주 찾아오겠다고 한 김재실녀성은 그후 정말로 최수길동무를 계속 찾아왔다. 집에 별식이 생기면 이미전부터 찾군 하던 영예군인과 최수길동무에게 꼭같이 나누어주며 어서 들라고 이르기도 하였다. 겨울이면 추울세라 따끈따끈한 군밤, 군감자와 김이 문문 나는 우유를 안고 찾았고 무더운 여름철이면 시원한 에스키모, 사이다 그리고 맛좋은 빵과 먹음직한 순대 등을 가지고 때없이 들리군 하였다. 그러다가도 입맛이 없어하는 기색이 보이기만 하면 문수각의 시원한 국수와 짜장면, 고기만두와 수수지짐, 록두지짐을 안고 땀을 철철 흘리며 뛰여와 밥그릇밑에 인삼록용이 있다는 말이 그른데 없다고 하면서 음식그릇을 비우는것을 보고야 마음을 놓군 하던 날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김재실녀성의 걸음은 비단 최수길동무와 그의 동무의 집에만 그친것이 아니였다.

김재실녀성은 최수길동무뿐아니라 많은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의 집을 찾아가 축하해주고 교무격려해주었다.

《조국을 위해 피흘리고 청춘을 바친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돌봐주는것은 선군시대 우리 공민들의 마땅한 본분이고 의무이라요.》

늘 이렇게 외우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자고 힘을 주는 김재실녀성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군 한다. 나이많은 몸으로 자신의 건강은 아랑곳없이 누가 알아주건말건 좋은 일만 찾아하는것은 젊어서부터 굳어진 김재실녀성의 고결한 성품이였다.

어느해인가 최수길동무의 집에서 하수도에 이상이 생겼을 때였다. 김재실녀성은 남들이 저어하는 그 일을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순식간에 걸싸게 해냈다.

위생공 못지 않다고 찬사를 금치 못해하면서도 최수길동무는 그가 수십년동안이나 도시위생공으로 일하였다는것은 알수 없었다. 최수길동무는 그것을 후날에야 알게 되였다.

영예군인들의 친어머니된 심정으로 일년사계절 온갖 정을 기울이면서 김재실녀성이 바란것이란 단 하나 그들모두가 병사시절의 그 정신으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는 그것뿐이였다.

본사기자 김치관

탄부들모두가 학부형

덕성탄광 2갱 일군들과 탄부들은 당의 교육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과 후원을 잘하고있다.

갱장 원정남, 김정준동무를 비롯한 2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겨안고 교육조건을 더 잘 갖추어주기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무더기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갱장 원정남동무는 우리 탄부들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교실인데 자그마한 흠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탄부들과 함께 지붕우에 올라가 온몸을 흠뻑 적시며 기와장들을 하나하나 다시 정히 놓아주었으며 자기 집에서 쓰려고 마련해놓았던 각종 자재들도 아낌없이 내놓았다.

감동을 금치 못하는 학교일군들과 교원들에게 일군들과 탄부들은 우리 탄부들모두가 학부형이라고 긍지높이 말하였다.

로농통신원 연전행

선군정치는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치방식, 승리의 보검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선군절과 조국해방 69돐에 즈음하여 브라질에서는 도서전시회와 좌담회가, 도이췰란드에서는 경축모임이 8월 13일과 14일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브라질자유조국당, 도이췰란드반제연단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은 사회주의강성번영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의 현실은 조국해방이라는 민족사적사변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조선민족의 해방의 은인이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될것이라고 격찬하였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지금으로부터 69년전 김일성주석께서 나라를 해방하신 때로부터 조선의 새 력사가 시작되였다.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신 김정일각하께서 선군혁명령도로 강위력한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하시였기에 조선은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승리만을 떨쳐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께서 조선을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더욱 발전시키고계시는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를 안겨주고있다.

우리는 앞으로 조선인민의 반제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지지하는 련대성활동을 보다 적극화할것이다.

도이췰란드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 *

선군절에 즈음하여 기네에서는 강연회, 사진전시회가, 나이제리아와 이란에서는 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가 8월 18일과 19일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사진, 도서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조선의 총대》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기네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 소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선군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선군정치방식을 확립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반만년 조선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륭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정치로 조선의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새시대를 펼치시였다. 그이의 선군정치는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기네 기꼬쁘레스그룹 행정책임자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나라와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하신 김정일각하의 업적은 조선의 선군절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나이제리아 요베주 교육성 과학기술국장은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이란 다이야몬드회사 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영화를 통하여 조선이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정치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설수 있은 비결이 선군정치에 있다는것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선군정치를 펼치시였기에 조선은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되였다. 조선인민이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경제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

선군절에 즈음하여 우간다,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에서 토론회, 강연회, 좌담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8월 21일과 22일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우간다전국항쟁운동 서기국 정치문제담당서기, 주체사상연구 우간다전국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김정일각하께서 지금으로부터 54년전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것은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전투대오로 키우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그들은 불패의 백두산혁명강군이 있어 조선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치고있다, 조선인민은 선군의 기치밑에 제국주의의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에티오피아 베텔병원 부원장은 조선이 미국과 당당히 맞서 승리하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선군정치의 위대성과 정당성을 실증해주고있다고 말하였다.

인도네시아 라비뜨라 바흐떼라 쁘라따마회사 사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선군령도에 의하여 조선은 불패의 보루로,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만을 창조하는 나라로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는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빛나게 이어지고있다.

김정은각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열어주신 선군의 길을 따라 승리의 신심드높이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인도네시아 드위 미뜨라 빠르까싸회사 사장은 김정일각하께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극적인 전환을 안아오시였다, 조선의 선군정치는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들이 따라배워야 할 가장 훌륭한 정치방식이다고 격찬하였다.

인도네시아 우니도 아지드하르마공업회사 사장은 우리 나라 영화 《태양칭송의 만년재보》를 감상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선군절과 더불어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조선혁명의 고귀한 력사와 전통이 드팀없이 계승되고있다. 조선인민은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김정은각하의 령도를 받고있다. 김정은각하를 모신 조선인민은 강성국가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 *

선군절에 즈음하여 꾸바혁명무력성 대외관계국에서는 경축모임과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몽골-조선친선합영 아치트-에호병원에서는 사진전시회가, 나이제리아 요베주 게이담경찰서에서는 영화감상회가 8월 22일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수록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꾸바혁명무력성 대외관계국 국장은 1960년 8월 25일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매우 의의깊은 날이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날을 맞이하는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의하여 선군혁명로선이 조선의 전략적로선으로 되였다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인민은 선군의 위력으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면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을 수호하였다.

꾸바에 있어서 선군정치를 구현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마찬가지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꾸바와의 관계에 매우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신다.

우리는 장구한 투쟁속에서 맺어진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한다.

몽골-조선친선합영 아치트-에호병원 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진전시회를 통해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위대성을 다시금 절감하였으며 인민을 위한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의 력사를 잘 알게 되였다.

주석께서는 몽골과 조선사이의 친선관계의 깊은 뿌리를 마련해주시였다.

조선인민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진심으로 흠모하고 높이 우러러모시고있다.

조선인민이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언제나 승리만을 떨치리라고 믿는다.

나이제리아 요베주 게이담경찰서 서장은 김정일각하께서는 선군령도로 조선의 군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을 강화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으시였으며 선군령도로 조선을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고 칭송하였다.

신문, 방송들 특집

선군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 방송들이 특집하고 기념보도를 하였다.

우루과이신문 《라 후벤뚜드》 8월 24일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조선의 선군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옹근 한면에 특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령도자께서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현지지도하신것은 실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라고 하면서 이날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수많은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시며 불패의 혁명무력건설에 쌓으신 절세위인의 공적을 상세히 서술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리론, 비범한 통찰력과 분석판단력, 해박한 식견을 지니시고 군사학의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 능통하신 김정일각하께서 계시여 조선인민군은 일당백의 전투대오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의 손길아래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흠잡을데 없는 최정예무력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은 제국주의강적과의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치였다.

지난 세기 말엽 조선인민군은 사회주의위업의 견결한 옹호자, 믿음직한 수호자로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사회주의공세를 단호히 짓부셔버렸다.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나라와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하신 김정일각하의 업적은 선군절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쿠웨이트신문 《알 라이》 8월 22일부는 《조선의 선군절 8월 25일을 맞으며, 김정일각하께서 선군으로 부강조국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를 수호하신 김정일각하께서는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인민군대를 내세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이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구호를 들고 대담한 공격전으로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하도록 하시고 그들이 발휘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을 전체 인민이 따라배워 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도록 하시였다.

일심단결로 필승불패하고 자위로 굳건하며 새 세기 산업혁명으로 부강번영하는 조선의 경이적인 현실은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보다 강화해나가신다. 그이께서는 렬강들의 압력과 위협을 물리치시며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확신성있게 이끌고계신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선군절은 더욱 빛날것이다.

같은 날 기네 국내, 국제방송과 7개민족어방송도 선군절과 더불어 길이 빛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칭송하였다.

성명, 담화 발표

선군절에 즈음하여 영국조선친선협회가 8월 2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였다. 그이의 선군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무적의 군대로 강화발전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반제혁명의 보루로,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위용떨치고있으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련일 창조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혁명령도를 빛나게 계승하여 조선의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시며 강성국가건설을 정력적으로 령도하고계신다.

* *

선군절에 즈음하여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가 8월 20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4돐을 맞으며 그이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에 충직하신 김정일각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으며 첨예한 반미대결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그이의 탁월한 선군령도에 의하여 조선은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도전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었다.

주체사상은 선군사상의 뿌리이다.

우리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각하께서 발전풍부화시키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널리 연구보급하며 이를 에티오피아의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다.

김정일각하께서 장구한 기간 불면불휴의 선군령도로 조선혁명과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한 위업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우리는 또 한분의 선군령장이신 김정은각하를 높이 모시여 조선인민의 꿈과 리상이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확신한다.

위대한 선군사상 만세!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 *

선군절에 즈음하여 수리아 디마스끄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 싸베르 발룰이 8월 24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8월 25일은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뜻깊은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는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였다.

선군정치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현 세계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정치방식이며 승리의 보검이다. 김정일각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선인민군을 현대적인 군사장비를 갖춘 강군으로 키우시여 조선을 없애버리려고 꾀하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련전련승을 이룩하시였다.

그이의 선군정치에 의해 조선은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세계에 위용떨치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조선의 모든 자위적조치들을 국제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도발》로 오도하면서 남조선괴뢰들과 야합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들을 미친듯이 감행하고있다. 그러나 적대세력들은 선군조선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있다.

영웅적조선인민은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당장 교수대에 매달아야 할 인권범죄자들

보도된바와 같이 얼마전 미국무장관 케리는 《인권유린》이니 뭐니 하고 우리를 또다시 걸고들며 《가만 앉아서 지켜만 보지 않겠다.》는 실로 가소로운 나발을 불어댔다. 까마귀가 열두번 울어도 까욱소리뿐이라고 미국이 쩍하면 그 누구의 《인권》이 어쩌니저쩌니 하며 우리의 존엄높은 영상을 해치려고 발광해도 소용이 없다.

문제는 남조선괴뢰들이 상전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극구 맞장구를 치며 동족대결에 계속 기승을 부리고있는것이다.

괴뢰보수패당은 조국과 민족의 버림을 받은 인간쓰레기들까지 동원하여 우리를 모해하기 위한 날조자료들을 꾸며내고 그것을 여기저기에 뿌리면서 국제무대에서도 《인권》광대극을 집요하게 벌리고있다.

모략적인 《인권》문제를 코에 걸고 외세와 작당하여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하려는 괴뢰들의 책동은 그야말로 발악적인 지경에 이르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의 《인권》모략소동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며 북남관계를 더욱 엄중한 사태에로 몰아가는 극도의 정치적도발이다. 괴뢰패당이 《북인권》이 어쩌니저쩌니 하고 계속 시비질을 하고있는것은 그들이 실지로 인권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들이 노리고있는것은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와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해치는것이다.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여론화하면서 반공화국적대의식을 고취하고 외세와의 반공화국대결공조를 강화하며 골수에 배긴 체제통일망상을 실현해보자는것이 바로 괴뢰패당의 속심이다. 동족에 대한 병적거부감에 물젖어있는 현 괴뢰집권세력에게 있어서 《인권》모략소동은 반공화국대결을 위한 기본수단으로 되고있다.

반인민적악정과 몸서리치는 파쑈독재통치로 온 남조선사회를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 인권유린의 란무장으로 만들고있는 괴뢰들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떠벌이는것은 그야말로 가소로운 정치만화가 아닐수 없다. 극악한 인권범죄행위로 하여 교수대에 매달아야 할 장본인은 다름아닌 괴뢰당국자들이다.

지난 4월 수백명에 달하는 학생들과 승객들을 바다속에 무참히 수장시킨 《세월》호침몰사고는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괴뢰집권세력의 고의적인 직무태만과 무능력이 빚어낸 끔찍스러운 반인권적범죄이다.

최근 괴뢰군내에서 발생한 윤일병타살사건의 책임도 괴뢰당국에 있다.

남조선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여온 인권문제는 현 괴뢰정권에 이르러 더욱 심각해지고있다.

누구도 돌보지 않아 고독하게 죽은 로인들의 시체가 수십일동안이나 내버려진 사실, 녀인들이 더는 살길이 없어 어린 자식들을 품에 안고 아빠트에서 뛰여내린 사실들은 초보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남조선의 썩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어린이집》이라는데서 누구보다 사회적보호를 받아야 할 불행한 어린이들에게 저지른 공공연한 학대행위들은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있다.

어린이들이 보챈다고 추운 겨울에 발가벗겨 바깥에서 벌을 세우고 갓난아이의 입에 더러운 수건을 물리였는가 하면 철없는것들에게 각종 고문까지 들이대고 지어 자루속에 넣어 산에 버린 만행 등은 실로 상상을 초월한다. 남조선사회를 이런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으로 만든것이 과연 괴뢰보수패당이 아니란 말인가.

현 괴뢰집권세력의 파쑈통치는 남조선의 인권실태를 더욱 협악하게 만들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는 서울구치소에서 경찰이 저지르고있는 심각한 인권유린행위를 폭로하였다. 쌍룡자동차해고자복직투쟁에 참가한것으로 하여 구속된 한 주민은 감옥을 돌아보는 보안과장에게 수용자들의 처지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미전부터 감옥내의 인권보장을 위해 단식투쟁을 벌리고있는 그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긴 파쑈광들은 요구를 들어줄 대신 오히려 그에게 30시간동안이나 몸에 고문장비를 착용시켜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었다. 그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으나 깡패들은 들은척도 하지 않았으며 저들의 죄행이 폭로되는것이 두려워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협박까지 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 각계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고문이라고 강력히 비난해나섰다.

얼마전 괴뢰경찰은 한상렬목사를 《보안관찰법》위반으로 또다시 탄압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그가 출소이후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는것이 그 리유이다.

《보안관찰법》에 의하면 《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였다가 출소한 사람은 10일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자기 위치를 신고해야 하며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10일이상의 려행을 하는 경우 또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항목에는 가족, 친우관계, 재산정도, 직업, 학력, 경력, 가입한 단체 등 별의별 조항이 다 들어있다.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또다시 족쇄를 채우는것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용납 못할 인권유린행위이다.

이런 실례는 얼마든지 있다. 최근 남조선당국은 일심회사건으로 구속되여 3년 6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출소한 한 량심수가 거주지신고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벌금형을 들씌웠으며 그가 거부해나서자 강제로동에 내몰았다.

한편 《보안관찰법》을 리행하지 않는 40여명의 인사들을 강제련행하거나 그들에게 분기별로 1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파쑈적악행도 저질렀다. 현재 남조선에서 《보안관찰법》의 대상으로 되는 사람들은 파쑈당국의 삼엄한 감시속에서 생활하고있다.

고령에 이르렀건, 중병을 앓고있건 상관없이 통일애국활동을 벌리였다고 하여 감옥으로 끌고가 악형을 들씌우는 세상, 삶의 터전을 빼앗지 말라고 롱성투쟁을 벌리는 사람들을 짐승사냥하듯 몰아대다 끝내는 불태워죽이는 귀축같은 만행이 감행되는 세상도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이런 세계최악의 인권지옥을 만든자들이 제 집안꼴은 못본척 하면서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반공화국모략소동에 악랄하게 매달리고있는것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치이다.

남조선괴뢰들의 《인권》모략소동은 날로 승승장구하며 젊음으로 약동하고 비약하는 우리 공화국의 찬란한 현실과 위용에 질겁한자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다. 괴뢰패당이 《북인권》에 대해 아무리 횡설수설해도 그것은 한갖 달밤의 개짖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괴뢰집권세력이 여론을 기만하면서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실현하려고 모지름을 쓰고있지만 부질없는짓이다. 그것은 오히려 인권교살자로서의 저들의 흉악한 정체만을 더욱 드러내보일뿐이다.

괴뢰패당은 주제넘게 그 누구를 시비하며 쓸데없이 놀아대지 말고 남조선의 참담한 인권실태나 바로잡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심철영

정치탄압을 중지하라

전국교직원로동조합, 민권련대 성명 발표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이 8월 30일 성명을 발표하여 괴뢰패당의 전교조탄압책동을 규탄하였다.

성명은 8월 29일 공안당국이 전교조 시국선언운동과 조퇴투쟁 등을 주도했다는 리유로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단체성원 3명에 대한 구속령장을 청구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전교조의 투쟁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결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탄압은 현 《정권》하에서 계속되여온 전교조탄압의 연장이라고 하면서 《정부》의 무차별적인 탄압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적인 행위로 력사에 기록될것이라고 단죄하였다.

권력의 동원하에 벌리고있는 전교조에 대한 끈질긴 탄압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성명은 전교조탄압에 항의하여 각계층과의 련대투쟁을 강화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

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민권련대)가 8월 30일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괴뢰당국의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8월 29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시국선언, 조퇴투쟁을 주도하였다는 리유로 전교조성원들에 대한 구속령장신청놀음을 벌린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리인 표현,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적행위이며 전교조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치탄압이라고 규탄하였다.

전교조를 법외로조로 만들고 교원들을 형사고발하며 인터네트홈페지봉사기를 수색하는 등 현 《정권》이 끈질기게 전교조를 탄압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국제로동기구를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정권》의 전교조탄압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더우기 《세월》호참사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원들은 수많은 어린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 대해 교육자로서 응당 자기들의 주장을 표현하였다고 밝혔다.

《정권》이 문제삼고있는 교원들의 조퇴투쟁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현 《정권》은 아이들에게 옳바른 교육을 하려는 전교조를 어떻게든 탄압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진보적인 종교인에 대한 탄압소동을 배격

8월 31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괴뢰경찰이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주교구의 박창신신부를 탄압하고있다.

박창신신부는 지난해 11월 군산에서 열린 시국미사에서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북에 위협을 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극우보수단체들은 북을 정당화하는 발언이라고 걸고들며 그를 《보안법》위반으로 고발하는 망동을 부렸다.

괴뢰전북지방경찰청은 신부의 발언이 《북을 리롭게 할 목적이 있다.》느니, 《리적성이 있다.》느니 하며 보수단체들의 고발사건을 조사한다는 명목밑에 박창신신부를 소환조사하려 하고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공안당국이 신부의 미사발언에 대해 《보안법》으로 조사하려는것은 명백한 종교탄압이라고 단죄하였다.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단체는 항의투쟁을 벌릴것이라고 밝혔다.

모략사건조작행위를 끝장낼것을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1일 괴뢰패당의 《종북소동》을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내란음모사건이 터진 때로부터 1년이 지났다고 하면서 국민은 사건을 조작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한 정보원과 현 《정권》에 반감을 표시하고있다고 밝혔다.

사설은 지난 1년간은 진실은 감출수 없다는것을 증명하는 한편 정보원을 비롯한 공안세력이 《종북몰이장사》를 더 계속하게 놔두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의 자위적대응도 년례화, 정례화될것이다

영국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지지하여 영국조선친선협회를 비롯한 영국의 진보단체들이 8월 1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세계에 조선처럼 60여년세월 항시적으로 전쟁위협을 받는 나라는 없으며 그 어느 나라도 자기를 반대하는 적대세력들의 1만 8 000여회의 각종 침략전쟁연습위협을 받아보지 못하였다. 양키들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년례적》이며 《방어적》이라고 하는것은 거짓이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조선을 침략하고 《북의 정권교체》망상을 실현해보려는 명백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군사연습은 보다 침략적인 성격을 띠고있으며 그 규모와 내용, 형식에서 지난 시기 연습들을 초월하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이야말로 유일하고 정당한 선택이라는것을 증명하고있다.

우리는 조선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핵전쟁연습들이 계속되는 한 그에 대처한 자위적대응도 년례화, 정례화될것이라는것을 선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 단죄

브라질정계인사 글 발표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 로자니띠 깜뽀스가 8월 22일 신문 《오라 도 뽀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구실을 찾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미국이 있지도 않는 조선의 《인권문제》를 떠들어대는것은 인민이 지지하는 나라,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까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적대세력들이 조선의 경제건설에 난관을 조성하고있지만 조선은 전진하고있으며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나가고있다. 조선에서 인권은 국가의 법에 의하여,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정권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진정한 인권은 인민을 위한 인권이다.

미국에는 인민의 복리와 리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존재가 저들의 리해관계에 저촉된다는데로부터 이 나라에 먹칠을 하고 자주적인 나라, 사회주의조선의 참모습을 가리우기 위한 외교가 필요하였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평화, 민족들의 자결권을 반대하고 세계제패를 위한 침략전쟁책동에 막대한 자금을 탕진함으로써 초래되는 자기 나라 인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나 걱정해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에서 지진피해

ㄱ-41138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